JUN 03 1981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TORONTO CANADA M5S 1A5

The Korea Times Toronto (Daily)

(일간) No. 540 1981년6월15일(월) 1025 DUPONT ST. TORONTO ONTARIO M6H 1Z7 (416) 533-2361 Monday, June 15. 1981

한국일보 토론토

박은주·백양미 복식서 중공 눌러
한국탁구 세계정상 차지
셋 스코어 3대1, 캐나다 오픈종료

한국의 여학생 2명이 세계탁구 개인랭킹 1, 2위인 중공의 장덕영, 통·린조를 개인복식전에서 격파, 여자복식탁구 세계정상을 차지했다. 노위치·유니온 보험회사 주최 캐나다 오픈탁구선수권대회 마지막날 경기에서 한국의 박은주·백양미양(서울여상 3년생)은 승승장구의 중공팀을 셋·스코아 3:1로 눌렀다.

〈제 1 셋〉
이날 박·백조는 접전이 시작된 후 10번의 동점을 이루면서 계속 씨소게임을 벌였다. 행운은 끝내 중공에게 기울어져 우리팀은19:21로 패배.
〈제 2 셋〉
맘을 쥐게하는 긴장된 분위기가 계속됐으나 우리팀은 2~3점의 리드를 견지, 21:19로 승리했다.
〈제 3 셋〉
다시 제1셋과 같은 타이·스코어로 씨소. 마지막 우리팀의 교묘한 서브공격은 적진을 교란, 21:19의 승리를 거두었다. 이로써 셋·스코어는 2:1.
〈제 4 셋〉
자신감이 넘치는 우리팀과는 달리 중공팀은 의외의 상대를 만나 불안과 동요의 빛이 역력했다. 공격과 수비 모두 안정을 이룬 우리팀은 여미 승리를 기약. 결국 21:15의 여유있는 스코아차로 중공에 설욕했다.

이토비콕올림피움을 꽉 메운 관중들은 어린 우리팀에게 우뢰같은 박수를 아끼지 않았다.

남녀단체전및 개인전에 걸친 모든 종목에서 우승한 중공으로서는 의외의 복병을 만난 것이었다. 박·백선수는 12일의 여자단체 복식에서도 장·통조를 눌렀었다.

주로 쥬니어급 선수를 파견한 한국은 여자단체전에서 2위를 했고, 여자 단식에서 박은주양이 3위를 차지 했을 뿐이었다.

박양은 준결승에서 중공의 국가대표이며 세계2인자인 통·린에게 3:1로패배했다.

이번 개인복식에서 장·통조는 1회전에서 이경미·김신애를 3:0으로 준결에서도 이정진·곽미희를 3:0로 가볍게 눌렀다가 캐나다팀을 꺾고 올라온 박·백조를 결승서 만난 것이다.

관중석에는 중국교민이 60%, 한국교민은 10% 정도에 불과했다.

이날 대회폐막후 캐나다정부및 주최측의 공동주최로 이토비콕 할리데이·인에서 열린 만찬회및 댄스파티에는 장영중공대사부처도 참석했다. 그는 오타와에서 내려와 경기기간중 시종 자리를 뜨지않고 중공선수들을 격려했다.

한국측 귀빈석은 끝내 비어있었다.

한국남녀 선수들은 만찬에서 "사랑해 당신을"을 합창했다.

교민중에서는 정영모 탁구협회회장과 김창열YMCA총무가 만찬에 참석했다.

◇백영미 선수

◇박은주 선수

이번 캐나다 오픈대회는 비록 13개국만 참가했지만 쥬니어급 선수들만 참가하는 예년과는 달리 중공및 헝가리등이 국가대표팀을보내기 시작, 앞으로는대회의 양상이 달라질것으로 보인다.

한국선수단은 탁구 협회 안내로 나이아가라 관광을 마친후 14일 저녁8시 쉬카고로 떠났다.

한편 동우회(회장 원영신)는 지난11일 저녁 선수들을 방문, 팝10상자, 오랜지1상자, 햄버거등을 전하고 CN타워등 시내 관광안내를 맡았다.

미 오픈 탁구 출전 남녀선수단 향발

(서울12일연합=본사특약) 제15차 미국 오픈 탁구선수권대회에 참석할 19명의 한국대표 선수단이 11일대회 개최지인 뉴저지주프린스턴을 향해 떠났다.

17일부터 21일까지 일주일간 열리는 이 대회에서 한국팀은 13개국 참가팀들중 결승에서 중공과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 작년도 이 대회에서 여자 단체우승및 남자단체 준우승을 차지했었다.

◇잠간 놀랐으나 침착성을 되찾은 여왕이 심각한 표정으로 말을 타고 사열을 계속하고 있다.

톰·린 스카웃 시도
백단장: "탁구 전망 밝다"

본사 송광호부장은 13일밤 만찬회에서 한국탁구백송빈총감독및 중공팀 단장류·세칭씨와 잠시 인터뷰했다. 류단장은 중국팀중 유일하게 영어를 쓰는 임원이었다.

〈백단장 문답〉

중공여자 최우수 선수를 꺾은 소감은?
백: 고교생들인 우리팀이 세계정상급 중공 선수들을 눌렀다는 것은 한국탁구의 장래를 말해주는 큰 경사로 본다.
—박은주·배양미는 학생이지만 처음부터 자신감과신념이 넘쳐흘렀다고들 말하는데…?
백: 실력 이상으로 싸와 주었다. 실력 프러스 신념이라고 할까. 내 생각으로는 10일 여자단체 준우승후대통령및 조상호 체육회장으로부터 받은 축전이 사기를 높인것 같다.
—기타 말하고 싶은것은?
백: 경기후 나는 중공 총감독에게 통·린 선수를스카웃하고싶다고 말했다. 조건은 월3천달러, 연 2개월 휴가, 3년계약 이었다. 또 중공이 우리를 초청하면 언제든지 중공에 가겠다고 전했다. 중공총 감독은 고개만 끄덕였다.

〈류·세칭 문답〉

—한국신문사에서 왔다. 인터뷰좀 하자.
류: 신문사라면 글을 쓰는 곳이 아니냐? 정말 미안하지만 할 얘기가 없다. 너희와는 관련이 없다.
—나는 스포츠에관해 묻는 것이지 정치적 문제를 질문하는것이 아니다.
류: 무엇이든간에 할 얘기가 없다. 네 상상대로 써라.
—우리 고교생들이 세계선수권자들인 너희 선수들을 꺾었다. 어떻게 생각하는지
류: 잘 했다 더 이상 얘기 못하겠다.

내년물가 14%

캐나다의 내년도 물가인상율은 14%정도이며 캐나다 달러화의 가치가 더욱 떨어질 것이라고 머컨타일·뱅크·오브·캐나다총재인·로버트·데이비슨씨가 주장했다.

2일 뱅쿠버에서있은 실업인들과의 회합에서 데이비슨총재는 내년들어 미국과 캐나다간의 인플레이션폭은 더욱 커질것이며 이같은 캐나다경제의 악화는 점차 커지는 노사문제와내셔널·에너지·프로그램에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그는또한 금년후반기 들어 이자율은 약간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영국경찰이 범인 사전트군을 체포하고 있다.

여왕 향해 공포 발사
모두 무사, 범인은 17세 무직자

(런던=영국)17살 먹은 무직영국 청년이 13일 상오11시 말위에 앉은 퀸·에리자베스 여왕을 향해 6발의 공포를 발사한 뒤 체포됐다.

여왕의 얼굴은 순간 공포로 질렸으나 곧 놀란 말을 달래면서 군중에게 미소를 잃지 않았다.

누구도 이사건에서 다치지 않았다.

총소리가 나자마자 남편 필립공과 촬스황태자가 선두에 나서 여왕을 보호했다. 총소리는 군중의 환호소리, 말발굽소리, 군악대 행진곡 소리에 섞여 크게 들렸다.

진홍색 군복차림을 한55세의 여왕과 범인은 불과 10피트의 거리를 두고 있었다.

여왕일행은 버킹햄 궁전 6백야드 밖에서 벌어진 전통적인 「투루핑·더·칼라」(Trooping the Color)행사에 참여, 왕실의장대를 사열하고 있었다. 이 행사는 여왕의 생일을 기념하는 연례행사이다.

경찰은 즉각 마커스·사이몬·사전트를 현장서 체포, 1842년 제정된 반역죄법 위반으로 구속했다.

그는 여왕을 놀래주기 위해 총알이 없는 권총을 발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법 위반자의 최고형은 7년 징역이다.

경찰은 범행동기를 조사중이나 정치성은 개재되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다.

한 소식통은 사전트군이 자기 이름을 내고 싶은 장난끼에서 범행한 것 같다고 말했다.

캐나다국가원수직을 겸하고 있는 여왕의 생일은 4월21일이지만 이 행사는 매년 6월에 열린다.

이날 여왕은 말안장에 옆으로 앉아 궁전 문을 나섰다. 연도에는 수만명의 군중이 나와 손을 흔들며 환호했다.

범인은 3시간 전부터 거리에 나와 기다리고 있다가 오른손으로 작고 검은 피스톨을 빼들고 왼손과 함께 겨냥, 방아쇠를 당겼다.

경찰이 곧 그를 덮쳤다.

그는 황태자와 다이애나양의 결혼기념 셔츠를 입고 있었다.

그가 사용한 권총은 모조품이었지만 실탄을 발사할 수 있을 만큼 정교했다.

레이건 미국대통령과 교황의 암살미수사건에 이은 이번 사건은 저명인사들의 경호에 큰 문제점을 제기했다.

영국경찰은 오는 7월29일로 예정된 촬스황태자와 다이애나·스펜서양과의 결혼식 경호계획을 전면 검토하기 시작했다.

경찰은 촬스황태자가 방탄 리무진을 탈 것을 권고했다.

토론토발행인: 김 명 규
토론토인쇄인: 김 형 근

The Korea Times of Toronto (or Hankookilbo) is Published daily except Sundays & Holidays. Supscription fee $90. per year, $8.00 per Month.
ISSN 0319 2962
구독료: 연 $90, 월 $8.00

토론토 쇼핑의 전당
미도파
454 BLOOR ST. W.
〈B〉536-1692
〈R〉245-3539

생명보험

(HENRY) KANG
Canada Life
12년간근무중
교육및
생명보험
은퇴연금
R·R·S·P
세금공제
B) 868-0922
R) 622-5147

Daily Newspaper
1025 DUPONT STREET, TORONTO, ONT. M6H 1Z7, TEL: (416) 533-2361

완 인 태 권 도
完仁跆拳道
Wanin Taekwon-Do

이는
이경태 사범이
아직까지도 최일선에서 지도하는 사범이요 태권도
전문인으로써 태권도 수련의 교육적 가치가 중하고
태권도의 과학화와 무도철학의 정립을 위한 사명감이
중함에 따라 연구·정진하여 온 바를 체계화 시킨
태권무도 입니다.

1. 완인태권도는 수련상의 제반 목적을 위한 수단으로서 무술을 익히고 그 과정으로서 무예를 닦는 것을 정도로 합니다.
2. 완인태권도는 무술및 무예로서의 지도방법과 기술적인 내용을 과학화한 무도이며 이의 절대적인 우선을 위하여 계속 노력을 경주할 것입니다.
3. 완인태권도는 정신적인 발달및 인격적 확립을 위하여 무도철학을 정립·개발시킵니다.

Kyong Lee Taekwon-Do Centre
세계태권도연맹·카나다태권도협회가입 회원 도장

다운타운도장 615 YONGE ST. (at Isabella St.) 929-5511
북부도장 2281 YONGE ST. (at Eglinton Ave.) 483-4002
동부도장 1865 LAWRENCE AVE. E. (at Pharmacy Ave.) 759-2500

※962-3000으로 문의하셔도 됩니다(통화중이나 응답이 없을 때).

관 장: 이 경 태
이곳 토론토에서 최초로 태권도 보급(1967)
건국대학교 태권도부 사범
대한태권도협회 심판위원
제3회 세계태권도대회 카나다국가팀단장
카나다태권도협회회장(1977~1980)

지도사범: 이 현 우 태권도5단

조 사 범: 존·웨잉거스트(3단), 랜디·매다(3단),
멜·암바릴리(3단)

M5S
East Asian Library
Rm 8049, Robarts Library
University of Toronto, Ont
M5S 1A5

6세소년 우물 빠져 사흘 견디다 끝내 숨져

(프라스캐티)지하 213피트에 떨어진 6살짜리 소년을 구하려던 노력이 실패, 소년은 추락후 70시간 이상을 엄마를 부르며 절규하다 숨져갔다.

로마부근 프라스카티의 알프레도·람피군은 10일 혼자 놀던 중 260피트 깊이의 이태리언식 우물에 빠져 지하 118피트 지점으로 추락했다.

알프레도군이 빠진 우물은 물은 없었으나 밑이 진흙탕이었으며, 폭이 좁아 어린이의 몸이라야 빠져나갈수 있는 정도였다.

이탤리정부는 첫 구조작업으로 체격이 작은 난장이를 우물속으로 내려보냈으나 급격한 커브를 통과하는데 실패했다.

두번째 시도로 사고지점 약간 옆에 굴을 뚫어 끌어올리려고 알프레도 소년이 갇힌 지점에 구조원이 거의 접근했을 때 알프레도가 또다시 213피트 아래로 떨어짐으로써 실패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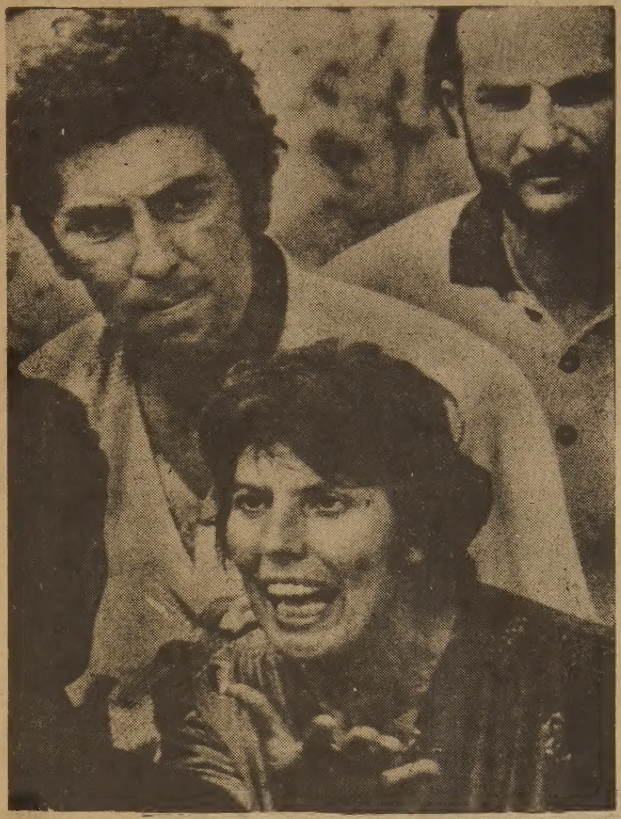
구조작업이 진행되는 동안 지상에서 플래스틱 튜뷰를 통해 우유와 물등 먹을 것을 내려보내기도 했다.

2천여명의 군중이 구조작업을 지켜보았고, TV등 매스컴은 마이크로 확대해 들리는 알프레도군의 "엄마! 언제 내게로 와요?" 하고 외치는 소리등 구조장면을 생생히 보도, 온 국민의 신경을 집중시켰다.

◇알프레도군

샌드로·페르티니 이탈리아 대통령도 현장에 나와 지켜보았으나 원래 심장질환이 있는 알프레도군은 13일 끝내 숨졌고 애타게 구조를 기다리던 엄마 프란체스카·람피와 아버지 페르니난도씨는 구조작업이 신속하지 못했음을 비난했다.

문제의 우물을 파서 덮개를 덮어두지 않은 농부는 기소될 것으로 보인다.


◇구조가 더디어짐을 비난, 울부짖는 알프레도군의 어머니 프란체스카와 뒤에는 아버지 페르디난도·람피

6.25참전용사에 기념메달 수여

(오타와이대은지국장)지난3일 주캐나다 이규현 대사는 6·25동란 제31주년기념행사의 일환으로 퀘벡주 소재 세인트·앤 병원에서 한국전 참전용사및 참전전사자 미망인 28명에게 6·25기념메달을 전달, 그들의 고귀한 희생에 감사의뜻을 전했다.

이날 수여식장에서 한미망인은 자기 남편이 이수여식날을 손꼽아 기다리다가 바로 일주전 사망, 남편의 메달을받고 감격의 울음을 터트리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는 무관허두기대령, 김창훈 주 몬트리얼 총영사, 연방정부 제임스·미스 원호처차관, MG 카드레 병원장및 직원, 동료 상이용사 500여명이 참석했다.

메달수여식후 병원측이 마련한 축하다과회석상, 메달 수령자들은 "오직 한국정부만이 참전용사들을 계속 잊지않고 감사의뜻을전해주는데 대해 감격했다" "우리의 희생이 헛되지 않았음을 자랑스럽게 여긴다"고 밝은표정을 보이는 용사도 있었다.

◇세인트 앤 병원에서 있은 메달 수여식에서 이규현대사(오른쪽)가 메달을 수여하고 있다。중앙은 무관 허두기 대령。

머나먼 여로위에 피는 영원한 목가 ⑦
무한으로 잇는 밀밭지대

권 순 창

잠깐 눈을 부친후 캄캄한 새벽속에 계속 달리고 있다. 꼬마들과 아내는 여전히 자고있다. 잠을 서부영화에 나오는 외로운 카우보이모양 말을 몰아 서쪽으로 뛰고있다. 어쩌면 달밝은 언덕위를 지나가고있는「라·만차」의기사인양 착각을 일으켰다. 새벽말을 달리고 있는 이국의 깊숙한「브렌든」근방에 와서는 몸이 몹시나 피곤하여 더 이상 운전불능, 도시외곽지 주유소 뒷마당에 정차, 수면을 취하다 7시반 다시기상, 동쪽이 훤히 밝아온다. 밀밭, 밀밭, 끝없는 밀밭, 중간중간의 방풍림으로 심은 나무그루들이 점점이 찍혀있다. 소련과 중공그리고 제3세계의 주린배를 채워주는 녹색의 바다. 하늘과 밀밭이 사방 둘레를 꽉 메웠다. 광막한 우주 공간을 날아가는 작은 우주선 모양 거대한 자연의 위력 속에 압도 되고 만다. 공기가 무척이나 신선하다. 오늘도 아름다운 햇빛이 빛나는 화창한 가을 날씨. 「사스카취완」「마니토바」주경을 통과하였다. 다만 행정구역의 분리에 지나지 않지만 그래도 새로운 기분으로 맞이하게되는 즐거움, 가도가도 끝없는 평야. 질펀한 밀밭에 바람이 분다. 바람에 물결 치듯이 결이 이루어 지는 이 광막한 大地! 산하나 언덕하나 없는 이 질펀한 밀밭. 다만 하늘과 땅을 가르는 스카이라인과 그 지평선 너머로 이어지는 하이웨이, 이 길을 따라서 우리는 無限의 나라로 달리고 있다. 간혹 시골 驛舍에 곡물 승강기(Grain Elevator)뾰족탑이 햇빛에 하얗게 반짝인다. 이국적이고, 엽서에나 나오는 풍경이다. 「레자이나」동방 200킬로 지점, 노랗게 마른 키큰 풀들이 덮인 평지에 차를 세우고 점심을 들었다. 우리는 풀밭을 헤치고 들판을 헤매었다. 혹시 메짱이나 메뚜기라도 구경할까하고 찾아 보았으나 허사, 이때 풀을 가르고 쏜살같이 지나가는 뱀 때문에 모두들 깜짝 놀랐다. 근방에서 일하던 농부한사람이 와서 이뱀(Gardensnake)은 무해하니 걱정말라고 말한다.

우리는 이 태평하게 생긴 농부와 얘기를 나눴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란 걸 알고는 희색이 만면하여이 근방에 MR. 유라는 한국인이 음식점을 하는데 그 솜씨가 대단하더라고 칭찬했다. 한식, 화식, 서양식, 마른하고 일품이라고 한다. 그런데 한가지 외로워서 못견딜 지경이더라고 일러준다. 근방에 동양사람만 지나가면 초대하여 극진히대접을 한다고 했다.

우리보고도 들러 보지 않겠느냐고 물어오면서 주소를 일러주겠다고 한다.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알아보니 한 50마일 전원 쪽으로 들어가야 한다고 했다. 외로운 동족을 만나고 싶었으나 시간상 생략하고 마음 속으로 기도를 드려 주었다. 이 광막한 북극의 평원에서 얼마나 외로웠을까. 대단히 용기있는 사람이라고 생각되었다. 중부 곡창의 전원 도시「레자이나」에 들어 왔다.

도시는 작고 아담했다. 이곳도 역시 스라브계통의 이민들이 많이 정착한 흔적을 볼 수 있다. 도시의 분위기는 훨씬 온화하고 평온하였다. 건축 양식은 러시아와 영국식의 혼합이었다. 주유소에서 급유를 했다. 이 도시의 주유소 특허 쉘(shell)회사 계통으로 주유소에 간이 식품점(milk store)을 설치 경영하는 연쇄점들이 산재해 있었다. 온타리오 북쪽에서부터 마니토바 사스케취완 국도변에 주유소와 식품점을 겸업하는「허스키」연쇄점이있고, 도시에는「7~11」연쇄점이 있었다.「위니펙」시에선「7~11」과 맥스 밀크가 공존하는 것이 보였다.

「알버타」주경이 가까워지면서 편편하던 지형은 경사가 약한 구릉지대로 변해갔다. 하늘은 잔뜩 찌푸리고 금방 한바탕 할 것 같은 험상궂은 얼굴이다.

구릉지대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밀밭은 씻은 듯 자취를 감추고, 지표는 풀들이 자라 이제는 바짝 말라빠진 서부의 황야로 쓸쓸하고 서글픈 생각을 불러오는 그러한 분위기가서리기 시작했다. 이곳 구릉지대 곳곳에 소금밭이 널려 있고 소금을 채집하는 공장이 보였다. 이 일대는 소금끼가 많은 토질임을 짐작할 수 있었다. 날이 어둑해서야「스위프트·커런트」에 도착, 서풍(西風) 이라는 모텔에 들었다. 풀도 제대로 자라지 않는 토박한 언덕바지에 도시가 진도개처럼 납작 엎드려 있다.「디펜베이커」호수로흘러 드는 작은 강이 도시 중간을 가로 지르고 있다. 물을 저장 할 수 있는 나무나 풀들이 없어서 조금만 비가 내려도 그대로 홍수가 난다고 했다. 서부의 개척지와 같은 엉성한 도시. 비가 쏟아진다. 낙수물 소리. 이 고독한 서부의 황야. 旅愁가 한꺼번에 밀려든다. 올때면 비가 전류층의 이동이 생기고 공기중에「이온」, 비례의 변화, 습도, 압력등의 물리적인 변화 때문에 인간 체내에 화학적인 베렌스가 바뀌지고, 그것은 슬픔, 우울증등의 부정적 요인이 된다고. 그래서 시를 쓰고, 고요히 명상에 잠기게 되는가 보다. 떨어지는 빗방울 소리, 촬촬 도랑 물 흐르는 소리, 밤이 깊어간다. 방안의 전등불이 따사롭다.

도미니언 데이 민속제전 김용순 무용단도 출연

캐나다의 국가탄생일 인 7월1일 도미니언데이를 경축하기위한 민속 예술제전이 35개 에트닉그룹이 참석하는 가운데 시청광장인 나탄·필립스·스퀘어에서 이날낮 12시부터 밤12시까지 계속된다.

한국대표로는 본사제정 민족상 예술부문 수상자인 김용순씨가 문하생들과 함께 출연한다.

이날 펼쳐질 각 나라 고유예술은 무언극, 밴드연주 및 각국 민속춤등이다.

주최측인 메트로 토론토 시의회 민속예술 위원회는 많은 시민들의 참석을 요망했다.

◇김용순씨

전과기록 삭제 주민등록부에서

(서울12일연합=본사특약) 285만 전과자들의 전과 기록이 주민등록에서 삭제된다고 12일 내무부가 발표했다.

내무부는 전과기록 삭제는 전과경력이 경범이었거나 형집행 완료후 10년이상 범죄사실이 없는 자, 혹은 형집행 유예를 받은 자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결혼축하

신랑 : 이기철군(이축길씨 장남)
신부 : 김기숙양(김창환씨 장녀)
때 : 81년7월4일(토) 하오3시
곳 : 성 바오로성당 (83 Power St. Tor. Parliament×Queen St.E.)
주례 : 고종옥신부
피로연 : Conroy Hotel (하오6시) 3080 더프린 스트릿

《매일연재 소설》

사슴을 먹고 사는 사람들 ⑪

팔리·모왓 원작, 원재웅 옮김

그다음주일 내내 나는이 털을 소중하게 여겼다. 왜냐하면 그것을 갖다놓은누구인가와 관계되는 물건일 것이며, 또 가까운 장래에 그가꼭 돌아오기를 진지하게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해가있는동안 캠프 주위의 보잘것없는 나무가시숲 굿은 세찬 바람을막아주는데도 허리까지, 때로는 어깨까지 잠기는 눈속을 헤치며 물가로 신고와서 얼음위에 부린짐들을 끌어들였다.

잎이푸른 전나무와 낙엽송나무가지를 꺾어 겨우밥을지을 불을 일구는데도3시간이 걸릴정도로 부지런히 일을해야 했으므로 몸이 더워지는것은 물론 성난 바람앞에서도 편안하게 즐길수 있었다.

그래서 결국 땔 나무걱정은 면하게 되었다. 내가 도착하던 날부터 폭풍은 연 사흘동안 쉬지않고 불어대더니, 나흘째 되는날부터 기후는 갑자기 변하여 북극에 봄기운이 오는 것 처럼 매서운 바람을 잠재워 주었다.

6월1일 햇빛은 이곳이도 무지 열대지방처럼 여겨질 정도로 따갑게 내려쬐며, 24시간중 18시간동안 빛났다. 봄이오던 이튿날 오두막집 옆에있는 언덕에올라가서서 나는 갑자기 두려움을 느꼈다. 물 가장자리와 커다랗게 깨진얼음사이로 흘러나오는 물이 강위를 얇게 덮었고 강의얼음이 깨지느라고 요란한소리를 내고있었다. 얼어붙은 강위로 물이 만 쪽으로 흘러내려와서 호수위의 강물처럼 뒤덮었고 이제는물이 제법 불어서 건너가지 못할 지경이었다. 반나절도 안되어서 내가 서있는데서 무릎까지 올라왔던눈이 12피트나 녹아버려 눈는 주전자에서 나오는수증기처럼 자갈과 죽은이끼를 들어내 놓고 증발해 버렸다.

괴상한 것을 보는것 같았다. 방금 얼어붙은세상의 꼭대기에 앉아 있었는데 말로 형용할수도없는 도무지 믿기어려운 순간에 세상이 부숴지고 완전히녹아 없어지는 것처럼 느껴졌다. 흙이패여 나간곳이나, 지대가 낮은곳은, 밤이래야 고작 잠시동안의저녁노을같은 시간에도 쉬지않고 소리를 내며 금방 물이 흘러들어 메꾸어 버렸다.

얼음도 녹기 시작했다. 얼음이얼어 반짝이던 육지의 표면이 일정한 공동의 압력으로 묶이고 연결되었던것이 수백만의 셀수없는 작은 조각으로 쪼개져녹기 시작해서 납덩이처럼 빛을 잃고 있었다. 녹기시작한 눈이 내 몸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니 땔 나무조차 찾아 헤맬수가 없게되었다. 나는 두이번 눈속으로 머리까지 빠져버렸기 때문에 차갑고 습기찬 눈속에서질식해 죽을까봐 겁이나서더 이상 나무를 찾는것을 포기해 버렸다.

잠시후에 새들이 찾아와서 하루아침은 광대처럼신나게 떠들며 미친듯이 웃어대는 수많은 음성을 듣고 억지로 잠을깼다. 앞문을 활짝 젖히고보니 머리가 벗겨진 50여마리의 햇빛에 반짝이는 새들의 눈과 마주쳤다. 머리는 닭처럼 생겼고 빨갛게 물들여져있어서 마치 몸의피가그쪽으로만 흐르는 것처럼보였다. 나는 겁이 덜컹나서 이 이상한 방문객들을 쏘아보았다. 그들도 무서운 작은 눈으로 쏘아 보더니 골짜기가 온통 떠나갈듯이 웃는것처럼 웃어댔다. 나는 곧 얼음덩이 하나를 주어 힘껏 던졌더니 새떼는 날아가 버렸다. 이 이상한 새들은 눈속에서는잘 보이지 않았지만 공중에뜨자마자 눈에확 띄었다. 북극에서만 사는 뇌조의 일종인 타르미건이란 것을곧 알수 있었다. 이렇게해서 그럭저럭 첫주는 지나갔다. 북극의 자연은 너무나도 난폭하게 바뀌어서 그 변화의 장엄함을 이해하기 쉽지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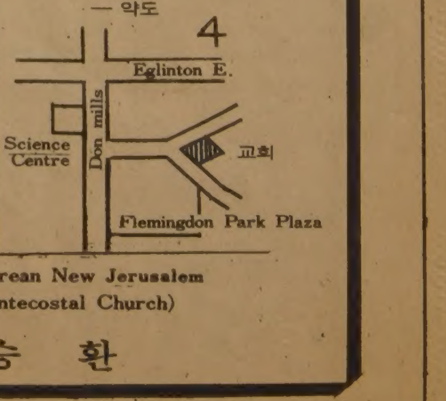
이제 겨우 내가 알기시작한 얼어붙은 땅이 그렇게 빨리 변화를 가져와서 내가지금 완전히 고립되어 귀양살이를 하고 있다는사실조차 믿기 어려울만큼넋이빠져 있었다. 따뜻하고 습기찬 공기는 봄철에 일구어놓은 농장기후와 비슷한 특성이 있었다.

겨울동안 전혀 숨도못쉬고 전혀 못쓰던 대지가 이제는 깊은 숨을쉬며 건강한 여인의 숨결처럼 정열을 가지고 있었다. 긴 겨울의 마지막인 어두워지는 짧은 저녁에도 불안때문에 잠을 이루지 못했다. 외로움을 달래려고 애를썼다. 대지의 모든 살아있는것처럼 나도 내가 잘 모르는그 낯선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으며, 바렌이라는것은 아마도 이해못할 실체라고께닿게 되었는지도 모른다.

6월4일 그 오두막 집뒤로 길게 뻗은 바위언덕에 올라가 뒷쪽의 경치를 보았다. 뜨거운 햇볕을 피하느라고 바람이 부는쪽의큰 바위위에 앉아 있었는데갑자기 반은 아직도 얼어있는 강위쪽에서 개들이 짖는 소리를 들었다. 거기접근해오는 낯선사람을 내가먼저 발견했지만 내가그렇게 기다리던 흥분에도 불구하고 내 모습을먼저 드러내기가 두려워 졌다. 나는 다람박질하여 산을내려오다가 내가 숨어있기에적합한 암석에 조심스럽게다가서 숨었다.

(계속)

사진의 전당
"새한칼라현상소"
결혼·돌·회갑 출장환영합니다.
스튜디오 완비로 각종사진을 원하시는 크기로 찍어드립니다.
630 BLOOR ST. W.
(B) 535-7772,
(B) 741-2842

—교회이전안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본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보다 더 좋은 장소로 아래와 같이 이전케 되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아 래—
이전첫예배 : 1981년6월7일(일) 오후2시
주 소 : 5 GRENOBLE DR., DON MILLS
(Flemingdon Park Pentecostal Church건물)
예배시간 :
● 주일 오후2시 대예배
● 주일 오후1시 중고등부 영어설교예배
● 금요일 오후7 : 30 성경공부및 기도회
● 수요새벽기도회 오전5 : 30
문의전화 : 925-8525


새예루살렘교회 (Korean New Jerusalem Pentecostal Church)
담임교역자 김 승 환

全大統領, 6個黨대표와 懇談

오는19일 靑瓦臺로 招致

아세안巡訪·「6·5提議」설명등 國政全般 폭넓은 意見교환

鄭政務제1、各黨舍순방 통보

全斗煥 대통령은 오는19일 民正·民韓·국민·民權·新政·民社등 6개정당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치, 오찬을 겸한 간담회를 갖는다. 鄭宗澤정무제1장관은 12일하오 이를 6개정당을 각각방문, 이같은 사실을 통보했다.

全대통령의 아세안巡訪을 앞두고 마련될 이번 간담회에서 全대통령은 아세안5개국巡訪의 의의및 6·5제의의 배경설명과 당면한 國政전반에 관해 폭넓은 의견교환을 갖게될것으로 보인다.

간담회에 초치될 각당대표는 民正의 李載灐대표위원, 民韓의 柳致松, 국민의 金鍾哲, 民權의 金義澤, 新政의 金甲洙총재, 民社黨의 高貞勳당수이며 鄭정무장관이 배석하게된다.

全대통령이 각 정당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치, 간담회를 갖는것은 지난2월20일 韓美정상회담후 가진 각당대표및 원로들과의 간담회에이어 두번째이다.

全대통령과 각당대표들과의 간담회는 제5공화국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對話정치의 일환으로 풀이되고있으며 앞으로 제도화 될것으로 보인다.

西獨經濟相 접견 全대통령

全斗煥 대통령은 12일상오 청와대에서 오토·그라프·람스도르프 西獨경제상을 접견하고 환담했다.〈사진〉 이자리에는 申秉鉉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과 볼프강·에거駐韓西獨대사가배석했다.

英·노르웨이와 각각 海運會談

정부는 오는16일 英國과, 19일에는 노르웨이정부와 각각 海運회담을 개최키로 합의했다고 외무부가 12일발표했다.

16일부터 이틀동안 런던에서 열리는 韓·英해운회담에는 정부측에서 柳宗夏駐英공사가, 英國측에서는 M·L·필더商務省해운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며, 오슬로회담에는 崔賢信駐노르웨이대사와 L·A·니가드노르웨이商務海運省해운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참석한다.

헤이그 홍콩着, 내일中共訪問

【홍콩12日AP=聯】 아시아·태평양지역 순방에나선 알렉산더·헤이그미국무장관은 중공방문에앞서 12일 홍콩에도착, 이틀간의 휴식에 들어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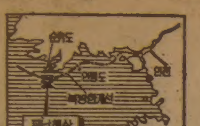
오는 14일부터 3일간 중공을 방문하게될 헤이그장관은 미국의 對대만무기판매에따른 중공측의 불만에부딪칠것으로 예상되는데 미국무성고위관리들은 중공에대한 최신무기 판매의사를 밝힘으로써 중공측의불만을 무마시키려 노력해왔다.

헤이그장관을 수행한 한관리는 이날 회견에서 미국이 중공의 센서스용 컴퓨터판매요청을 승인하지않은것은 국가적인 불명예라고말했다.

漁船1척 또 北傀에被拉

11일下午 船員21명탄채 限界線 남쪽서

제1공영號



11일 하오1시께 선원21명을태운 仁川수협소속 어선 제1공영호(48톤·선장 孫錫實·49)가 시계불량으로 항로착오를 일으켜 서해 延坪島남쪽의 북방한계선부근 해상에서 북괴경비정에 납북되었다고 수산청이 12일 발표했다.

수산청에 의하면 제1공영호는 이날 조업을마치고 仁川항에 입시귀항할 예정이었으나 몹시불량한시계와 해류에의해 측정착오를일으켜 항로를잃고 북방한계선으로 접근했으나 월선하진 않았다고 밝혔다.

또 수산청은 제1공영호에 영세어민들이 승선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내에 어민과 어선을 송환할것과 북괴의 계속되는 비인도적 어선납치행위를 즉각 중지할것을 촉구했다. 납북된 선원명단은 다음과같다.

▲선장 孫錫實(49) ▲기관장 이형복(27) ▲선원 변영… 〃장석호(20) 〃이현식(24) ▲남국태 ▲김종현(20) ▲〃이은주(22) ▲〃김용선(22) ▲이강규(33) ▲〃이상국(20) ▲〃김창근(23) ▲〃김영철 ▲박현종(20) ▲〃이무빈(28) ▲〃박석천 ▲최양헌(32) ▲〃최석근(24) ▲〃이남석(42) ▲〃도형봉(22) ▲〃박종규(42) (29) (43)

36개市郡 완전解渴

26개地域은 미흡 15·18일께 두차례降雨

전국에 최고88㎜의 단비가 내렸다. 4개월동안 목이 타던 대지는 오랜만의 단비를 흠뻑 머금어 푸르름을 되찾았다.

지난9일 하오부터 3일동안 간간이 내린 비는 11일하오부터 12일상오까지 전국적으로 제법 세차게 내려 가뭄이 극심했던 전국62개 시·군중 36개지역이 완전해갈 되고 나머지26개지역은 모내기에는 부족하지만 밭작물에는 충분한 강우량을 보였다.

아직도 모내기에 강우량이 부족한지역은 경기 驪州, 江華, 강원의 三陟, 旌善 충북의 淸原, 報恩, 永同, 槐山, 충남의 扶餘, 保寧, 瑞山, 전북 南原, 高敞 전남 高興, 珍島, 新安, 莞島 경북의 義城, 安東, 尙州, 聞慶, 醴泉등26개 시·군이다.

이번비는 가뭄이 극심했던 嶺湖南지방에 비교적 많이내려 평균40~60㎜를 기록, 밭작물은 완전 해갈됐고 모내기도 가능하게 됐다. 비교적 가뭄피해가 덜했던 서울·경기·충남북과 嶺東지방에는 평균10~20㎜가 내렸다.

비가그친 12일 하오1시현재 지역별강우량을보면 경남 南海지방이 88㎜로 최고였고 順天·昇州71·4 晉州62·2 부산61·6 咸陽60 麗水58·4 麗山54·6 木浦51·3 群山50 光州40 大邱46·1 全州30·1 大田33·7 淸州21·9 西歸浦37·1 春川16·1 水原12·5 서울9·9㎜를 기록했다.

도별 평균강우량은 경남60·1㎜ 전남44·8 경북33·5 전북33·2 충북24·6 충남24·1 경기13·2 강원18·6 제주25·8㎜.

중앙관상대는 12일 상오까지내린 비는 하오부터 기압골의 통과로 날씨가 맑아지면서 그치고 15일께 다시기압골이 다가와 남부지방에13~29㎜정도의 비가내리고 다시 18일부터 3일간 계속 비가 내릴것이라고 예보했다.

한해대책본부는 이번 비로 극심한 가뭄은 면하게 됐다고 밝히고 앞으로 1주일 안에 전국적으로 40㎜이상의비가 내리면 완전해갈될것으로 내다봤다.

◇흡족하지는 않지만… 전국에 단비가내려자 가뭄으로 모내기를 하지못해 애태우던 농민들이 모내기에 열중하고있다. 모내기를 하다 다시 맑게 갠 하늘을보며 웃음짓는 농민의 표정은 밝기만하다. 〔경기도華城郡台安面餠店2里에서 12일하오=崔東□기자찍음〕

모스크바地下鐵驛 爆彈테러

火災발생…1百여명 死傷한듯

때맞춰 市內곳곳서 잇단 화재·爆發사고

【모스크바12日外信=聯】 모스크바시내 중심가의 「10월」지하철에서 11일 폭탄공격에의한 대형화재가발생했으며 이로인해 약 1백명이 사망 또는 부상한것으로 보인다고 모스크바의 서방외교소식통들이 이 소련 소식통들을 인용, 12일 전했다.

서방 목격자들은 앞서11일 이 화재가 진압된직후 시체 7구가 천천에 싸여 들것에 실려나갔으며 최소한 20명의 부상자가 긴급 소개되는장면을 확인했다고 밝힌바있다.

소련당국은 사고발생 약20대의 소방차가 현장에출동, 화재진압작업을 폈을뿐아니라 주변에 수십대의 경찰차량및 앰뷸런스가 대기하고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사고에 대해 일체 침묵을 지키고 있는데 이는 이번 사고로 인한 희생자수가 상당수에 달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

만약 이번 화재사고가 폭탄공격에의한 것임이 사실로 판명될경우 이는 모스크바시내 지하철에서 발생한 사상두번째의 테러공격이 되는 셈이다.

외국관측통들은 이번 화재사고가 일어나던 당시 로시아·호텔등 모스크바시내 곳곳에서 외국의 화재및 폭발사고가 연쇄적으로 발생, 수십명이 사망한 사실에 유의하면서 이번사태를 예의주시하고있다.

서울·平壤통과제의 日—中共 항공路線 日·朝友好聯

【東京12日=聯】 일본의 日·朝우호촉진의원연맹의 구노·주우지회장은 12일 玄峻極을 단장으로하는 북괴대표단과의 1차회담에서 나리따(成田)—서울—北京과 北京—平壤—나리따의 왕복항공노선을 개설하자고 제의했다.

이에대해 북괴측은 2차회담때 북측의사를 밝히겠다고 말한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국회내의 중의원의원회관에서 열린 1차회담기조연설을 통해 구노의원은①민간무역촉진②어업협력③한반도상공을 통과하는 日—中共항공로개설④黃海의 석유자원공동개발등 4개항목에 관해 제의했다.

이가운데 나리따—北京항로와 관련, 현재의 가고시마—上海상공을 비행하는 남쪽항로를 폐기하는대신 시간단축을위해 한국과 북괴영공을 통과하는 북쪽항로개설을 제의한것이 주목을 끌고있다.

그러나 구노의원은 비행기가 서울과 平壤에도 기착하는지 단순히 영공만을 통과하는것인지에 관해서는 명백한 설명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美、신발類 輸入규제 解除

한국·臺灣産…이달末 期해

【워싱턴12日=聯】 美행정부의 차관급 무역정책위원회(TPC)회의가 11일 하오에 열려 오는30일을 기해 한국과 臺灣으로부터의 신발류수입에 대한 규제조치를 해제할것을 건의하기로 결정했다고 월·스트리트저널지가 12일 보도했다.

지난6월초 행정부관계부처 실무자급회의에서도 이와같은 결정이 내려진것으로 전해진바있다.

미무역정책위원회의 장 윌리엄·브록 美통상대표부 대사는 이회의결과에 논평을회피했으나 그보좌관들은 무역정책위원회가 회의결과를 대통령에게 건의하며 레이건대통령이 6월30일 이전에 최종결정을 내린다고 밝혔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한편 약40명의 美상원의원과 1백명에 이르는 하원의원들은 신발류 제조업자들의 請願을 받아 지난5월하순 이래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고 한국과 臺灣의 신발류수입 규제조치를 3년간더 연장할것을 요구한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美행정부보다 대체로 보호조치를 취해온 강력한 ITC(국제무역위원회)는 지난4월 한국에 대해서는 신발류 수입규제를 해제하고 臺灣에 대해서는 2년간 더연장할것을 재의, 행정부에 건의한바있다.

이爆擊 정당화안돼 外務部논평

외무부는 12일 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 기습공격과 관련, 이번 사태에 대해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하며 이는 국제법상 정당화될수 없다고 논평했다.

對美 議員外交 多角채널 展開 國會

국회는 지난 수년간 중단되다시피했던 韓美간의 의회교류를 정상화시키기위해 丁來赫의장의 訪美를 비롯, 다각적인 채널을 통해 對美의원외교를 적극 전개시키기로했다.

국회는 全斗煥대통령의지난2월 訪美성과를 바탕으로 1·12제의 및 6·5제의등 남북대화제의를 의회 차원에서 홍보, 확산시키고 전통적으로 他國과 의원친선협회를 구성하지않는 미국에 대해서는 경제·안보등 각분야별로 실질문제협의를 위해 개별접촉을갖거나 개인적 친분관계에 중점을 두는것이 실효성이 있다는 판단에 따라 별도의 對美의원외교방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地平線

79년9월22일 밤의 일이다. 미국의 스파이위성에 두개의 불빛이 기록됐다. 아프리카대륙 남쪽 끝 희망봉의 남쪽 대서양에서 일어난 불빛이다. 미국 중앙정보국(CIA)의 비밀보고에 의하면 이때 해역에서는 남아프리카공화국 해군함정들이 비밀 연습을 하고있었다 한다. 이불빛은 2·5내지 3킬로톤 규모의 작은 원자탄이 터질 때 생긴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나 백인 소수파정부 관리들은 핵실험설을 강력히 부인했다.

▼이에 앞서 77년 여름 미국과 소련의 스파이위성은 남아프리카의 칼라하리 사막에 핵실험시설로 보이는것을 발견했다. 이때 포르스티수상은 카터美대통령에게 핵실험시설이 아니라고 다짐했지만, 이것이 핵실험시설임은 거의 확실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작년2월 유엔의 지원으로 공개된 한 보고서에 의하면 남아프리카가 일본 廣島에 떨어진 것과 같은 원자탄 4개에해당하는 원료를 확보하고있다고 말하고있다.

▼네게브사막 디모나읍 근처에는 이스라엘의 「과학적 연구를위한 핵센터」가 있다. 미국의 국회의원도 이곳에서는 「입장금지」다. 애초에 60년 미국의 U2 첩보기가 이사실을 알아내자 이스라엘은 「방직공장」이라고 시치미를 떼기도했다. 이에 앞서 이스라엘원자력위원회의 위원 거의 전원이 원자탄 제조에 반대해서 사임했다는것도 뒤늦게 밝혀졌다. 미국의 정보당국은 이스라엘이 10내지 20개의 원자탄을 갖고있는것으로 보고있다.

▼작년4월 프랑스 남쪽 툴롱항부두에서는 이라크로 가는 한 화물덩어리에 폭탄이 날아들었다. 이화물은 프랑스가 수출하는 오시라크원자로의 연료봉이었다. 수개월뒤인 작년9월30일 바그다드 교외에 건설중이던 이라크의 핵연구소가 폭격을 당했다. 마침 이란과 전쟁중이어서 이란공군의 공습이었다고 생각됐지만, 사실은 이스라엘공군의 비밀작전이었다고 파리의 신문들은 보도했다. 이라크정부도 그렇게주장했다.

▼이스라엘은 지난7일 이라크의 오시라크원자로를 폭격해서 10초만에 파괴해버렸다. 2억7천5백만달러 (1천8백90억원) 짜리 프랑스제 원자로가 결국 파괴되고만것이다. 이원자로는 원자탄원료로 쓸수있는 93%의 농축우라늄을 쓰는 것이었기때문에 없애버렸다고 이스라엘은 주장하고있다. 그러나 핵확산금지조약에가입한 이라크를 핵확산금지조약을 거부하고있는 이스라엘이 공격한것이다. 독이 약이 될지 모르지만 여기는 「핵확산통제」에 새로운 문제점이 드러난 셈이다.

구독신청 배달사고 (533) 23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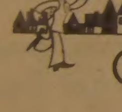
한국일보
우리의理想은健全한新聞
會長 張康在 發行人 洪惟善 編輯人 鄭泰演 印刷人 李基和 編輯局長 權赫昇

결혼·약혼 예물은 로렉스와 다이아몬드 전당 은하 보석상에서
오늘의 금은 시세
금: 온스당 US 465
은: 온스당 US 10.20
은하 보석상 635 BLOOR ST. 534—9977, 424—2599

KIMKOR
종합보험대리점
적금
교육, 은퇴, 모기지 적금.
부동산

김종조
535—0028
535—7200.

교포 사회의 등불 한국일보
빠른 소식!
놀라운 광고 효과!
(416) 533·2361



사원모집
(BAKER MANAGER TRAINEE)

모집인원 : 약 간 명
자 격 : 제과(Bakery)관계 종사할수 있는 21세 이상의 남녀
년 봉 : 만8천불(이익수당40%)
훈 련 : 4주이상
SECURITY DEPOSIT : 만불 이상
장 소 : London, Brampton, Mississauaga, Aurora, Toronto, Sudbury, Ottawa, Vancouver
문 의 처 : Bread-Man Ltd. 240 Humberline Dr. Rexdale, Ont. M9W 5X1
전 화 : 416—675—8930(MR. 오)

BREAD-MAN LTD.

大中華藥材行

건강관리에 녹용과 인삼을
中國良藥
좋은 보약으로 당신의 건강을 유지해 드립니다.
우황청심환 우황 녹용
웅담 사향 해구편 정주사
GREAT CHINA HERBS CENTRE
482 Dundas St. W. Toronto
(Spadina와 Dundas 북동 코너)
P. O. Box #5181 Station "A" Toronto, Ont.
◎ 매주 수요일은 휴업
영업시간 : 오전11시~오후8시
전화 977—8858~9

정부 18개職責에 別定職 임명가능

勞動部·文公部·國立도서관등

行政의 硬直性 해소케 學·藝術界서 起用전망

국무회의는 12일하오 노동부, 문공부, 국립중앙직업훈련원, 국립현대미술관, 국립영화제작소, 중앙국립극장, 국립중앙도서관 직제를 고쳐 현재 一般職으로만 補職케돼있는 18개 직책에 특수경력직(종전의 別定職)도 임명할수 있게했다.

이직제개정에따라 一般職이나 別定職중 어느공무원으로도 임명할수있는 複數職으로 결정된 자리는 文公部의 경우 公報局長, 문화예술진흥관, 홍보조정실의 서기관 3명과 사무관2명, 문공부산하의 현대미술관장, 국립영화제작소장, 중앙국립극장등 10개이고 勞動部의 경우 노정국장, 부녀담당관, 통계담당관실서기관, 국립중앙직업훈련원장등 7개자리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의 경우는 국립중앙도서관장직이 複數職으로 됐다.

이같은 직제개편에따라 노동·문공·문교부등에는 앞으로 노동계, 학계, 예술계, 언론계 인사들이 기용될 전망이다.

정부가 노동·문공부와 산하기관직제를 고쳐 別定職을 임명할수 있게한데 대해 총무처관계자는『정부의 필요한 직책에 외부의 관계 전문가를 임명해 행정의 硬直性을 풀기위한것』이라고 설명하고『노동·문공부와 산하기관외에 다른부처에대한 別定職추가계획은 아직없다』고 말했다.

歷史·考古學졸업자 地方公務員에 特採

국무회의는 1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을 고쳐 稅務행정직과 財政일반행정등 86개 직렬을 신설하고 歷史·考古人類學및 民俗學계통의 학과를 졸업한 사람을 특별임용…

教育稅신설 反對

民韓, 稅法개정해 財源마련

民韓黨은 12일 현재의 租稅부담률이나 경기침체상황을 고려, 교육세 신설을 반대키로 결정했다.

民韓黨정책위원회(위원장朴完奎)는 이날 교육세신설문제를 논의한끝에 이같이 결정하고 대신교육재정에 소요되는 財源을 충당키위해 현행각종稅制를 개정하는방안을 마련키로했다.

교육自治制 계속固守

教員자격기준 現場經歷 필수로

民正, 文教정책方針 재확인

民正黨은 12일 당정자회의를 갖고▲교육자치제의 계속 고수▲교원인사제도의 합리적운영▲초등교육행정의 특수성과 전문성의 확대▲교직자의 사회적, 경제적 지위향상▲교직의 전문성 보장▲사립교원의 복지기회확대등 6개항에 걸친 문교정책에 관한 黨의 기본방침을 재확인했다.

「言論研究院」발족

院長에 尹壬述씨

사단법인 한국언론연구원이 12일 정식 발족했다.

行政力동원 모내기 끝내야

농수산부 稻熱病 확산우려 防除도

농수산부는 충분하지는 않으나 전국에 단비가 내림에 따라 인력등 가능한 방법을 모두 동원해 보리베기와 모내기를 끝내도록 12일 각 시도에 강력히 지시했다.

亞洲會計기구 李감사원장 參席 馬聯에

油價引下문제 거론 국민 經科委 질의때

오늘 經科委 열어 物價등 報告·질의

북한뉴스

北傀준비 强化비난 美·日安保협의회에

人事異動

本社來訪

「6·5제의」와 北韓反應의 분석

平和統一接近에 對話·交流거부란 語不成說이다

朴東雲 <本社논설위원>

우리가 바라는 平和統一의 未來像은 화목스러운 民族的大家庭의 復活에 귀착된다. 오늘의 分斷狀況 속에 어느 일방의 體制를 상대방에 강요하려는 평화목적의 수구로는 平和統一이 이루어질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接近노력의 基調는 和合의 求心作用이어야하며, 그반대로 分裂과 鬪爭을 선동하는 遠心作用으로는 문제해결을 기대하지 못한다.

이러한 기준에 비추어 작금에 전개되고 있는 南北韓관계의 평평한 樣相은 良識있는 모든 겨레로하여금 착잡한 失望感을 금치못하게하는 實情이다. 주지하는 바와같이 平和統一政策 諮問會議의 제1차 전체會議에서 천명된 全斗煥 대통령의 새「6·5提議」는 우선 상대방에 대한 呼稱에서부터 획기적으로 부드러운 語調를 인상깊게하였다.

「北韓 金日成主席에게 아무런 부담과 조건 없이 서로를 방문하도록 초청한 지난 1월12일자 제의의 수락을 다시한번 강조해두는 바입니다」고 한것이다. 나아가서 6·5提議는 南北韓 最高責任者회담의 장소와 시기의 선택을「北韓당국에 일임」한다고 했으며, 議題에 관해서도「그동안 南北韓당국이 제외했던 統一方案을 포함하여 쌍방이 제기하는 모든 문제들을 허심탄회하게 의논」하자고한 開放的 내용을 새로 제시하였다. 또「南北의 현상과 體制를 관찰·전망하고 분석·비교할 수있는 충분한 기회가 온 겨레에게 주어져야 마땅한것」임을 강조한데 이어「만일 北韓측이 사회의 완전개방을 당장에할 수없는 형편이라고 한다면 우선 體育·文化·學文·郵便·經濟交流부터라도 시작해서 차차 완전交流·완전開放으로 접근해갈수 있기를 희망하는 바입니다」고 부언한것이다.

그리고 이 6·5提議는 국내외 절대다수 동포들의 고무적 환영과 平和愛好국제사회의 긍정적 反應을 환기했음이 명백했다. 현재 우리의 民族成員은 南韓에 3천7백60만, 北韓에 1천7백30만, 日本거류민 60만5천을 포함한 아시아地域에 68만, 北美地域 60만, 中南美地域에 1백90만, 歐羅巴 3만, 中東 38만9천, 유럽地域 2만이상등 총계가 5천8백여만명에 달한다. 세계유수의 大民族이라고 하겠거니와 이 6천만 겨레의 대다수에게 6·5提議가 폭넓게 알려진것과는 판이하게 北韓 동포들에게는 내용의 골자에 대한 사실報道조차 인공적으로 통제된것으로 관측되었다. 그런대로 北韓當局측의 합리적인 反應이라도 며칠 기다려볼 형편이었는데 결과는 극렬적인 반대·파괴손동으로 표현된 셈이다.

가령 평양의 黨機關紙「로동신문」은 6월10일자의 論說을 통해 南北韓 最高當局者간의 만남을 정면으로 거부하면서 유례없는 人身攻擊과 誹謗中傷을 가열시켰는가 하면 파괴활동선동에 붙어 그들의 종래 주장에 관한 非妥協的 고집과 獨善的 高姿勢만을 부각시킨 셈이다.

社說

내려야할 物價는 내리길 —安定의 새바탕찾을 轉機온것같다

국제적으로 物價가 내리막길에 접어든것 같다. 미국·독일·日本같은 先進14國의 경우 작년의 工産品가격 동태를 보면 제작년에비하여 도매가격에서는 스위스의 8·7%를 선두로하여 캐나다·日本·독일·벨기에등 8國에서 내렸으며 수출상품가격지수에서는 역시 스위스의 6·8%를 최고로 하여 7國에서 내렸다. 이를 반영하여 工産品부가가치를 不變가격으로 환산하는 지수에 있어서도 덴마크의 12·1%를 으뜸으로하여 7國에서 각각 돈가치가 높아진 것이다.

逃走犯은 自首했지만 —檢·警의 捜査태세 再點檢따라야

政局往來

'領受證만 보이면 全額물어준다는건 常識에 어긋나.'

일본스테이크 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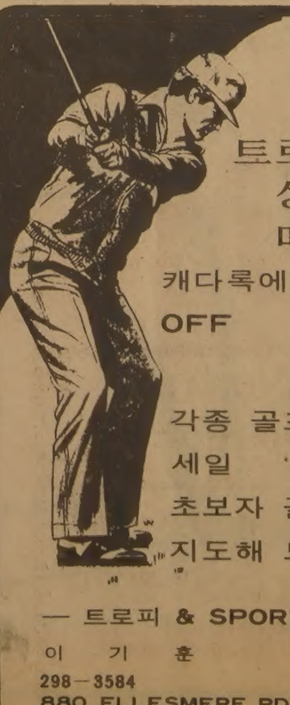
전형적인 일본식

STORE HOURS
평 일:
스페샬점심시간
11 : 45AM ~ 2 : 30PM
5 : 00PM ~ 11 : 00PM
토요일:
5 : 00PM ~ 11 : 00PM

일요일은 문을 닫지만 예약에 한해서는 언제든지 일을 합니다.

444 YONGE ST.
at College Park
전화 : 597－1255～6

※파티, 단체예약등 환영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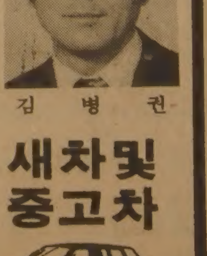
트로피,
상패,
매달.
캐다록에서 50% OFF

각종 골프장비
세일
초보자 골프
지도해 드립니다.

— 트로피 & SPORTS —
이 기 훈
298－3584
880 ELLESMERE RD. UNIT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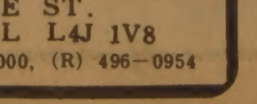
NORTH YORK CHEVROLET OLDSMOBILE GM

친애하는 교민여러분
항상 아낌없이 성원해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난 6월1일부터 SIC 저희 회사에서는 종전과 같은 주소에 카나다에서 가장 현대적이고 제일 큰 쇼－룸과 써비스 시설을 갖추고 여러분에게 보다 만족스러운 써비스를 제공할수 있게 되었아오니 1차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읍니다.
김 병 권 올림



김 병 권

새차및
중고차



7200 YONGE ST.
THORNHILL L4J 1V8
☎: (B) 881－5000, (R) 496－0954

Montreal Trust
REAL ESTATE DEPARTMENT

안녕하십니까?
해밀톤에서 전과다름없이 여러분을 모시게 되었읍니다. 바로 토론토 근교인 해밀톤에 아직도 싼 값으로 부동산을 구입하세요.

① 3베드룸, 2층독채벽돌집. $33,900. $5,000 다운
② 2베드룸 아파트가 6개 있는 3층벽돌집 $72,900. $10,000다운
③ 버라이어티 가게와 아파트 3개 있는 2층벽돌 건물, 비지니스 포함하여(주매상 $4,000) 139,000+스탁 Try5만 다운
④ 버라이어티 가게(주매상 $6000)+ 2층건물(아파트2개) $219,000+스탁
Vacant Lot For Parking
버라이어티가게(주매상 $3500)
건물포함(2) $98,000
버라이어티 가게(주매상 $4,000)
건물도 구입가능

140 CENTENNIAL PARKWAY NORTH
HAMILTON, ONT.
BILL CHUN SALES REPRESENTATIVE
전 병 호
560－1882, 662－4705, 662－7609

"軍備競爭 열세不容"

브레즈네프 西方側 격렬히非難

"美·나토 行動신호 묵과못해 對處방안 獨自的으로 수립"

【모스크바12日UPI=聯合】소련공산당서기장 레오니드·브레즈네프는 12일 레이건 美대통령취임후 가장격렬한 對서방비난을 퍼붓고 소련은 군비경쟁에서의 열세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것이며 어떠한 대소군사위기도에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처하겠다고 선언했다.

브레즈네프는 이날 소련을 방문중인 울로프·팔메 전스웨덴수상을 맞아 그같이 말하고 소련이 어떠한 군비경쟁의 재개움직임에도 결코 눈감고있지 않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브레즈네프는 레이건 대통령이 미행정부의 주안점으로삼아온 새로운 미방위계획강화에 대해 소련지도자로서는 이제까지중 가장 명백한 반응을 보이면서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진영의 군국주의자들, 특히 미국의 군국주의자들이 보이고있는 군사적히스테리의 격렬한 행동신호를 묵과할수는 없다고말했다.

그는 이같은 운동의 조작자들이 기만을하고있으며 소련의 위협이있다는 유사한증거조차 제시하지 못하고있다고 비난했다.

브레즈네프는 소련은 이같은 모든 움직임에 눈을 감을수 없으며 이에 상응하는 대처방안을 독자적으로 수립할것이라고 경고하고 어떤도전에도 신속히 그리고 효율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하게 될것이라고 밝혔다.

中小企業人 70만 中共서 復權조치

「근로계층」으로 再分類

【北京12日聯=聯合】중공정부는 지난 50년대 중반 자본주의자로 비난받았던 70만명의 중소기업가들을 복권했다고 관영잡지 「반월담」지가 12일 밝혔다.

이잡지는 86만명의 상점주들과 소규모 공장주들이 조사를받아 이들중 81%에 해당하는 약 70만명의 중소기업가들이 착취자가 아닌 「근로자 계층」으로 분류됐다고전했다.

이들 중소기업가들은 극좌파들의 시위였던 반우익운동이 전개되던때 자본주의착취자들이라는 비난을받았었다.

日本국민중 半數는 核艦기항 反對않아

【東京12日AP=聯合】일본국민의 약반수는 핵적재미함정의 일본기항에 반대하지 않는것으로 일본의 유력지 요미우리신문이 최근 실시한 한여론조사에서 12일 밝혀졌다.

安保理 비상회의

【유엔本部11日UPI=聯合】유엔安保理는 이스라엘의 이라크원자로폭격과 관련하여 이스라엘에대해 범세계적인 통상및 외교적제재를 가해야한다는 아랍연맹측 주장을 듣기위해 12일하오4시 (한국시간13일상오5시) 비상회의를 소집했다.

이에앞서 바그다드에서 열린 긴급 아랍聯盟외상회의는 15개국 유엔安保理가 이스라엘의 통상·외교및 군사관계의 전면단절을 결의하도록 촉구하기위해 유엔本部에 대표단을 파견하기로결정했다.

死亡5천…이란 地震피해늘어

1천5백여명救助

【니코시아13日AP=聯合】11일 이란 동남부 케르만성을강타한 지진으로 인한 사망자수는 약5천명에 이를 것이라고 이란관영 파르스통신이 12일 보도했다.

파르스통신은 이란회교적십자협회의 현지발 보고를 인용, 5천명가량의 행방불명자들이 모두 무너진 건물속에서 숨진것 같다고 말하고 폐허에서 5백구의 시체를발굴하는 한편 1천5백여명이 구조됐다고 전했다.

파르스통신은 또 테헤란동남쪽 1천㎞에 위치한 골바프트읍의 95%가 지진으로파괴됐다고 전하고 이지역일원에 보안군 동원령이 내려진 가운데 헬리콥터를 동원, 구호품을 나르고 구출된 부상자들을 공수하는등 활발한구호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라크 原子爐공격 報復위해 이核연구소 爆破를"

가다피 리비아革評議長 주장

【런던11日聯=聯合】아랍연맹이 바그다드에서 긴급외상회의를 소집, 對이스라엘제재방안을 논의하고있는 가운데 무아마르·가다피 리비아革評의장은 11일 디모나에위치한 이스라엘의 核연구소를 폭파하겠다고 위협했다.

리비아의 관영 자나통신은 가다피혁명의장이 이날 트리폴리에서 행한 한 연설에서 이스라엘이 이라크원자로를 공격한만큼 아랍제국은 원자탄을 생산하고있는 이스라엘의 디모나核연구소를 폭파시켜야만 한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다.

이機 이라크攻擊때 地下核시설도 파괴

【텔아비브11日UPI=聯合】메나헴·베긴 이스라엘수상은 11일 이라크원자로에대한 이스라엘의 공격으로 지상에 설치되어있는 원자로이외에 이스라엘공격용核무기를 제조하기위해 地下4m에 건설해놓은 비밀核무기시설도 함께 파괴됐다고 밝혔다.

피해補償제의 사우디, 이라크에

【베이루트12日AP=聯合】사우디아라비아는 이라크에 대해 지난7일 이스라엘기폭격에의해 파괴된 이라크 원자로의 피해를 보상해주겠다고 제의했다고 베이루트 좌익간지 아스·사피르지가 12일 보도했다.

◇「떼죽음」으로 달리는 印 초만원 列車 이렇게많은 승객을 태운열차가 홍수로불어난 강물속에 뛰어들었다. 지난6일 천명이상의 생명을 앗아간 사고현장 印度파트나市의 한철교를지나는 노선열차는 항상이렇게초만원이다. 문에매달리고 지붕에까지 올라탄채 달리는 모습이 평시 피난열차를 연상케한다. 이번 인도의 열차사고는 단일사고로서는 1912년北大西洋에서 빙산과충돌, 1천5백명이 몰사한 여객선 타이타닉號 침몰사고 다음으로 큰 사고다.【UPI】

波공산당 「民主化」될것인가

◇無名勇士묘소에 獻花하는 카니아 메이데이(노동절)에 무명용사묘소에 헌화하는 카니아당제1서기㊧와 야루젤스키수상. 이 묘소에는 1920년 러시아가 폴란드를 무력침략했을때 항전하다 숨진 폴란드인이 잠들어있다.

國際焦點

프라하危機 맞먹는 크렘린 威脅물리쳐

최후關門은 7월 黨大會

蘇, 승산없으면 侵攻단행

제안자는 친소강경파 정치국원 그라브스키였다. 이 제안이 채택되었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제1서기 카니아와 수상 야루젤스키가 손을 맞잡은 온건파는 숙청되고 강경파가 득세하는 찬스를 줄뻔했다. 그러면 지난여름 노동자승리이래 폴란드사회 각분야에 들불처럼 번져온 自由化물결을 한꺼번에 막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流血사태를 일으키고 말았을것이다.

[illegible]

마르크스주의를 신봉하는 공산당임에는 틀림이 없으나 소련이 [illegible] 민주화 개혁바람이 불고있는 폴란드 현체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소련이 기대한 공산당내까지 깊숙이 파고들었다.

폴란드 공산당대회 준비위원회는 지난4월 ▲黨간부선출의 비밀자유선거제 ▲黨내 조직의 민주화 ▲당직자의 겸직및 임기제한등을 골자로한 黨개혁 초안을 채택했으며 이 개혁안은 黨중앙위 전체회의에서 승인되었다.

이 黨개혁안의 마지막 남은 절차는 폴란드의 최고정책결정기관인 黨대회인준을 받는것이다. 「黨의 民主化」를 주장하는 하급당원들의 주장대로 이 개혁안이 당대회에서 인준될경우 폴란드 민주화의 길은 탄탄대로에 들어서게된다. 폴란드는 공산국가 최초로 자유선거에의해 대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즈비그니에프·이바노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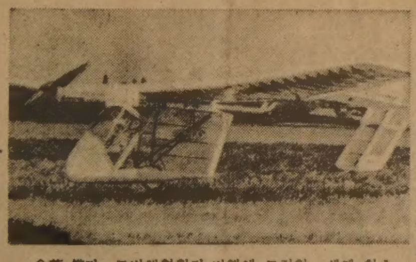
[illegible]

黨中央委 전체會議 民主改革派승리背景

반대89, 찬성24, 기권5. 표결결과가 공표되자 장내는 술렁댔다. 모두들 상기된얼굴. 교차하는 시선들은 이제 또 한 고비를 넘두나」하는 안도감을 담고있었다. 11일 바르샤바에서 열린 폴란드공산당 중앙위원회 마지막날 회의장의 표정이다. 위원들은 현 정치국원들이 폴란드의 위기를 수습할 능력이 없으니 정치국원 개인을 놓고 신임투표를 하자는 제안을 압도적으로 물리쳤다.

[illegible]

【李炳圭기자】



◇英·佛간 도버해협횡단 비행에 도전할 세계 최초의 태양열 에너지비행기.
【코르메유·앙·베젱 (프랑스) 12日 UPI電送=聯合】

波, 각료5명更迭

야首相 議會에 同意요청

【바르샤바12日UPI=聯合】보이체흐·야루젤스키 폴란드수상은 12일 폴란드는 지금대파국직전의 상태에 이르렀다고 경고하고 법무상과 식품공업·조달상등을 포함한 주요각료의 경질을 의회에요청했다.

야루젤스키는 이날 의회에서의 경제보고를통해 부수상겸 국무계획위원장 헨리크·키지엑, 법무상 예르지·바피마, 식품공업·조달상 아담·코발리크, 물가담당무임소상 예르지·가브리치아크, 통상 즈비그니에프·루드니키등의 해임을 요청하면서 키지엑은 건강때문에, 바피마는 그의 요청에따라 각각 사임했으며 루드니키는 은퇴했다고 밝혔다.

폴란드의 이같은 개각은 수개월동안에 걸친 자유노조의 도전과 대결로 말미암은 국내경제위기의 결정적인 악화에 압력받은 것이다.

야루젤스키는 부수상에 비그네프·마데즈, 법무상에 가스 [illegible]

美, 日에 海上補給요구

韓半島유사시 대비

【東京12日=宋孝彬特派員】미·일안보실무협의회는 12일 한반도에서의 유사시에 공동대처하기위한 「미·일방위협력지침」작성에 착수했다고 아사히신문이 보도했다.

이날 미·일안보 실무자회의에서 미국측은 극동유사시에 대비키위해 ①주일미군의 재배치와 기지의사용 ②주일미군의 극동유사시 대응을위한 날진과 이에 관련한 편의제공을 일본측에 요구하고있으며 더나아가 미군에대한자위대의 해상보급과 공동대응등 작전행동의 협조를 요청했다고 이신문은 보도했다.

아프간, 改閣단행해 새首相 키시트만트

【뉴델리12日AP=聯合】친소아프가니스탄정권의 바브라크·카르말 대통령은 11일 대폭개편작업에서 그의심복인 알리·키시트만트를 새수상에임명했다고 아프가니스탄방송이 보도했다.

정치活動中止 지시 바웬사, 勞組員들에

【바르샤바12日AP=聯合】폴란드 자유노조 지도자 레흐·바웬사는 11일 폴란드노조운동원들에 대해 앞으로 「빵과버터문제」등에만 전념하고 정치적 활동은 중지하도록 지시함으로써금주초소련지도층으로부터 「반혁명세력」에대한 저지능력을 상실했다고 강한 비난을 받은 현 폴란드공산당 제1서기 스타니스와프·카니아에 숨돌릴수있는 기회를 마련해주었다.

네스테프·자바즈키, 식품공업·조달상에 지그문트·라르미에치, 국가물가계획위의장에 블라디슬라프·마예프스키, 물가담당 무임소상에 즈디슬라프·크라신스키를 각각임명하는데 의회의 동의를 구했다.

海外토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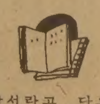
太陽熱추진 비행기 오늘 도버海峽횡단

【파리11日AP=聯合】사상최초의 태양에너지 추진비행기가 11일 파리교외에서 성공적인 시험비행을 끝내고 사흘가량 허용하면 13일 역사적인 도버해협 횡단에 오른다.

「솔라·챌린저」란 이름이 붙은 이 9m 날개폭 14m의 소형비행기는 1만6천개의 光電池로 충전되는 8㎾짜리전기엔진에 의해 추진된다.

솔라·챌린저는 이날 테판·태시크씨와 재니스·브라운씨등 2명의 美조종사에의해 번갈아 조종되면서 마침내 짧은 도약비행을 한후 차례 파리근교의 코르메유·앙·베젱비행장활주로를 이륙, 수백m쯤 [illegible] 상공을 거의 소리없이 날았다.

珍奇古書



메아리

한국역사의 자랑거리로 활자문화를 손꼽는다. 금속활자를 만들어 책을 찍어 낸 것은 고려인의 솜씨였다.

開京의 궁궐에 있었던 清燕閣과 臨川閣엔 수만권의 장서가 소장되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1091년께 宋나라에선 없어진 책을 고려로 구하러 왔었다. 책의 富國 고려에 시샘이 난 중국의 문인 蘇東坡는 고려에 책과 鐵을 주지 말라고 상소를 올린 일까지 있다. 고려의 장서들은 蒙古族의 亂에 소실되어 지금까지 아쉬움이 남는다.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책도 우리나라에 있다.

15년전 경주 불국사에서 발견된 불교경전은서기704년 이전것으로 추정된다. 우리선조들의 뜨거운 책에의 애정은 뛰어난 「책의 문화」를 발전시켜왔다.

최근 國民들이 사이에 많아 오른 國學熱은 「옛것」과 「우리것」에 대한 관심을 상당히 높여주었다. 古書나 珍·奇書를 찾아 헌책방을 뒤지는 발길이 제법 많다. 이런 흐름을 따라 지난해 가을에 열렸던 「東洋珍奇書展」과 「50~60년대 예서적」 세일등은 크게 성황을 이뤘었다.

오늘에 와서 古書라고 해야 몇백년전의 책이 아니고 그 영인본 또는 일제때와 6·25전후의 古本들이 대부분이다.

내주부터 「한국의 逸書·奇書·珍書전시회」가 열린다고 한다. 고려에서 근대까지 출판문화의 변천과 脈을 짚어 볼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된다. 高麗法華經과 조선조 초기에 만들어진 明心寶鑑, 우리말로 번역된 최초의 「신약전서」등은 많은 흥미를 끌것 같다.

古書애호열은 좋지만 그에 반해 걱정되는것은 오늘의 심각한 「출판불황」이다.

출판계의 반짝경기가 오래 고개를 들지 못하고 날로 오그라들고 있다. 올들어 전국에서 1백30여개의 서점이 문을 닫아 버렸다. 서울에서도 30여개소가 불황에굴복하고 말았다.

출판사마다 창고에 쌓여만 가는 책더미를 바라보며 망연하게 한숨만 몰아 쉬고 있는 형편이라는 울적한 소식이 들린다. 이웃 일본은 한해 30억부의 책을 팔아 1조3천억円의 매상을 올린다.

책은 전시용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읽혀져야 제구실을 하는것이다. 읽을만한 책을 많이 펴내고 또 많이 사들여 열심히 읽는 열풍이 불어 닥쳤으면 좋겠다.

世界의社說

蘇의 極端조치排除 관심

●르·몽드(佛·11日字)

폴란드공산당 제1서기 카니아가 10일밤 黨중앙위의 정치국과 강경파를 누르고 거둔 놀라운 승리는 소련에 심각한 타격을 주었다.

크렘린측은 이번 회의에서 바람직하지 못한 인물로 자주 지목되어온 카니아와 수상 야루젤스키를 제거시키기위해 최대의 압력을가해 왔다. 소련공산당 중앙위가 폴란드黨중앙위에 보낸 경고서한은 사실상 카니아와 야루젤스키를 축출하라는 요구를 담고 있었다.

카니아와 야루젤스키는 앞으로도 강경파의 도발에 직면할 것이나 폴란드가 안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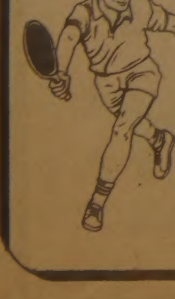
소련의 문제는 이들의 평온유지정책에따라 폴란드에 대한 극단적 조치가 배제될 수 있느냐의 여부이다.

레이건, 盟邦見解傾聽징후

●더·타임즈(英·9日字)

[illegible]

토론토한인 테니스 클럽 회원모집



테니스를 좋아하거나 배우고자 하는 분들에 친목과 연습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회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장 소 : 더프린 Mall건너편 공원속 (더프린×블루어)
시 간 : 매주 토요일 오전9시~오전11시
시 작 : 6월20일(토)부터

※김가별, 이건영 선생의 쥬니어및 성인남녀 무료 렛슨

연락처 : 바시티 운동구점 967—7304
장복성 964—2990,
김일현 881—9232

토론토 한인 테니스 클럽

거 구 장

— 특 별 메 뉴 —

즉석불고기, 선지피 해장국, 멍게, 생선회, 한식, 중화요리, 케네디안식
※회갑, 생일파티, 동창회 피로연
영업시간 : 11A. M. —밤12시까지
5 BETHRIDGE RD. ETOBICOKE
☎ : 742—1618
곽정렬, 김선남

SHANGHAI RESTAURANT

메뉴 : 군만두, 찐만두, 짜장면, 우동등
Open Hours : 화~금 11 : 30AM—12PM
일요일 11 : 30AM—11PM
(공휴일도 문 엽니다)
주소 : 334 SPADINA AVE (NEAR KENSINGTON MARKET)
☎ : 864-9347

SEA KING RESTAURANT

유명한 바다요리, 맛있는 중국요리
한국분들이 매우 즐길 수 있는 게요리, 가재미찜, 천엽요리, 잡채등을 항상 마련하고 있아오니 많이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133—135 DUNDAS ST. W. TOR.
☎ : 977—3441

意安飯店 (의안반점)

홍콩식 그대로의 분위기, 새벽4시까지 영업
일류요리사가 만드는 전통적인 광동식 요리,
경제적이고 실질적인 값싸고 맛있는 음식.
※항상 신선한 랍스타, 게, 굴, 해삼, 전복등을 준비해 있읍니다.
영업시간 :
월~금 : 4PM~4AM
토요일 일요일 : 12PM부터
171 DUNDAS ST. W.
(Spadina동쪽으로 Chestnut코너) ☎ : 977—9734

家事의 시름 글로 씻으며…

여류문학인회「主婦백일장」… 2백50여명 참가

◇한국여류문학인회가 마련한 백일장에는 비가내리는 궂은 날씨에도 2백50명의 주부가 나와 글솜씨를 겨루었다.

壯元에 馬善淑씨 수필「앞치마」 最高齡 6旬할머니엔 특별상도

한국여류문학인회(회장 趙敬姬)가 해마다 주최하고 있는 주부백일장이 10일 문예진흥원 강당에서 열렸다. 올해로 15회를 맞는 주부백일장에는 비가 뿌리는 궂은 날씨에도 2백50여명의 주부들이 참가했다. 이들은「앞치마」「隨筆」등 2개의 제목을 받아 글 솜씨를 겨루었는데 馬善淑씨가 산문「앞치마」로 壯元을 차지했다.

아기 업은채 솜씨 겨루기도

우리극장「民草」

극단「우리극장」4회정기공연인 朱剛玄作, 趙恒庸연출의「民草」가 17일까지 삼일로 창고극장에서 공연된다. 공연은 평일하오 5시·7시30분, 土·日요일은 하오 4시·7시.

YWCA 큰장날

서울YWCA는 18일·19일 Y회관에서 큰장날을 연다. 이 바자에는 밑반찬·미싯가루·멸치·의류·축제품·이불·화장품·채용 작품·생활용품이 염가로 판매되며 수익금은 근로여성·심신장애자 돕기에 사용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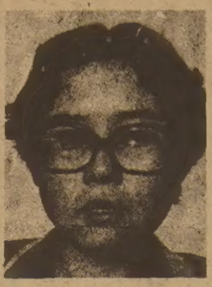
成人病 무료강좌

「生綠汁과 成人病」에 관한 무료강좌가 13일하오2시 청소년회관 강당에서 열린다.

壯元〈수필〉

앞치마

馬善淑


◇壯元 영광안은 馬善淑씨

내 몸에선 늘 앞치마 냄새가 난다. 털고 닦고 세수하고 빨아도 어쩔 수 없도록 그 냄새가 배어 버렸다. 앞치마를 두르고 나의 하루는 솔꽃처럼 고단하고 피로하다. 안방서 부터 구석구석 쓸고 닦고, 세끼 식사를 준비하고 치우고 빨래를 해 널면 아이들은 여기저기 어지러 놓기만 하고 또 치우고 흩치고 그렇게 하루 해가 손가락 사이로 빠져 나간다.

매일매일을 쓸고 닦아도 먼지는 끝없이 내려와쌓이고 그렇게 흔적도 없이 바쁘기만 하다.

어느 화려한 옷보다 잘어울리는 누더기

詩部 1등

◇詩部1등 권점출씨

육교

권점출

하루의 햇살이 육교아래 무너지고
무수히 일어서는 햇살이 파놓은 참호
위로
날이 저문다.
日常을 경작하던 허전한 공간
철둑이며 절둑이며 떠나가는 하루
빠른 섬광의 잔해위로 불어오는
한 줄기 바람
어디선가 화약냄새가 난다.

여기서 보면
우리들의 항구는 아득해
속북처럼 도처에 어둠이 내리고
都市의 집들은 발갛게 돌경의 등을
말고
부지런히 노를 젓고 있다.
마침내 침몰하고 만다.

<경북금릉군개령면 서부국교 교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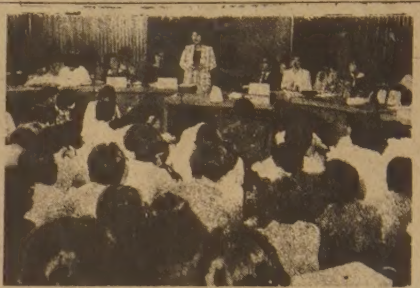
文豪의 名言

自身은 덮어두고 남의 缺點만 찾아

에디슨 <1672~1719>

"夫婦의 調和 건강과 관계크다"

延世大 백양모임「夫婦論」세미나


◇바람직한 현대부부론을 정립하기위한 백양학술모임이 지난10일 延大에서 열려 성황을 이루었다.

아내쪽이 더욱 큰 異常나타내
女性의 依存性은 사회價値때문
美서도 個體아닌「相互관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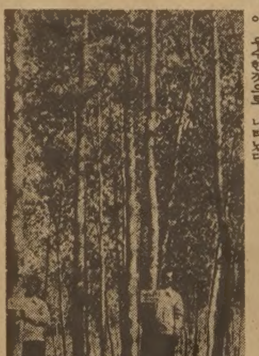
나의 이력서

<國字·玄信圭>

玄信圭 ㉗

교잡육종의 實用化

리지테다「世界育種史」에 올라 큰기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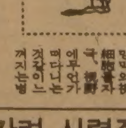
값싼 종자위해 濟州道에 교배採種園 추진

流星의 賦 <104>

李炳注 作 李友範 畵

紀昌의 길 ⑬

現代人의 健康百科



硝子體 혼탁과 출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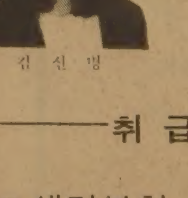
浮遊物이 視野가려 시력장애나타나

金在浩

SunLife OF CANADA

"여성보험인등장"

Sun Life Assurance Company of Canada Congratulates Kim Shinmyong on her appointment as sales representative of the Company's Toronto Metro Branch.


김 신 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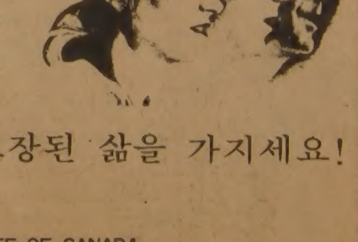
Sun Life 는 종전과는 달리「생명보험」뿐만이 아니라 교육, 연금, 주택, 사업금융 모기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보험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위해 봉사하고 있읍니다.

이질 문화권의 캐나다 대륙을 딛고 새꿈을 이룩하려는 이민생활에서 가장 적당하고 가장 알맞는 보험에 관한 서비스가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요. 성심 성의로 여러분의 곁에서 도와드리겠읍니다. 교민 여러분의 가정과 하시는 사업들에 일익번영이 깃들기를 앙망 합니다.

김 신 명 드림

취급보험

- 생명보험
- 교육보험
- 연금제도
- 그룹보험
- 주택, 건물및 사업금융 모기지보험
- R.R.S.P



보장된 삶을 가지세요!

주소 : TORONTO METRO BRANCH SUN LIFE OF CANADA
22 St. Clair Ave. E. 4th Floor Toronto. Ont. M4T 2S3
B)922-3111 R)439-8885

新安유물 또 대규모盜掘

서울地檢 6명구속…달아난 主犯등 3명手配

文化財 보호감시원과 짜고 청자등 百여점 건져팔아

新安해저보물 1백여점을 도굴, 밀매한 일당6명이 또 검찰에구속됐다. 서울지검 朴桂賢검사는 12일 도굴범 朴昇九(32·경기城南市 上大院洞352의28) 金德明(36·木浦市港洞2) 李正容(48·전과2범·전남新安郡 智島面自東里1348) 朴康男씨(38·〃防築里842)등 4명과 판매책 韓乙洙(39·전과3범·경기城南市銀杏洞591의58) 李東喆씨(35·전남新安郡智島面大東里796)등 2명 모두6명을 문화재보호법위반혐의로 구속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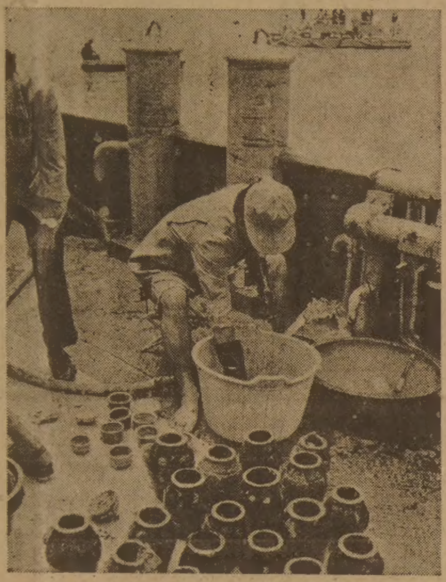
4월부터 5차례…묵인代價 30點받아

검찰은 또 新安해저유물감시초소 감시원 田炳雨씨(38)와 金正錫씨(28)등 2명이 이들의 도굴을 묵인, 그댓가로청자등 30여점(싯가 1억원 상당)을 전네받았다는 확증을잡고 이들의 신병을확보,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달아난조장호(38), 김연서, 이모씨등 주범, 자금책, 잠수부 3명을 수배했다.

검찰에 의하면 朴昇九씨등 4명은 지난4월중순 밤10시께 문화재보호구역인 전남新安郡智島面 道德島앞 바다밑에서 중국元대 청자항아리 2점등 20여점을 도굴한것을비롯 5월29일까지 5차례에걸쳐 모두 1백여점을 도굴했다는것.

이들은 김강밥 파도가자고 안개가끼는때를골라잠수부를 동원,유물을 꺼내는수법을썼는데이때감시원들과서로짜고 도굴을 묵인해주었다는 것.

또 구속된 판매책 李씨는 지난4월중순께 木浦와 大田에서 청자항아리 1점등 모두 5점을 손수서씨등에게 1천2백40만원을받고팔았고또 韓씨는 지난9일 하오2시께 鍾路區武橋洞 한일다방에서 청자대접등 6점을 윤여홍씨에게 1백50만원에 팔려다 붙잡혔다.



◇新安해저유물이 또 도굴돼 검찰이 일제수사에나섰다。 6백50년간 잠자던 新安해저유물들은 지난 78년부터 햇볕을 보았으나 아직도 수많은 유물들이 무방비로 방치돼있는 것으로 드러났다。【사진은 78년 1차인양때의宋元代항아리】

안경 안맞춰준다고 女高生이 목매自殺

12일상오7시께 서울 城東區龍踏洞85의5 趙甲東씨(56·한의사)집 건넌방에서 趙씨의 막내딸 容善양(17·舞鶴여고2년)이 옷걸이못에 넥타이로 목을매고 숨져있는 것을 趙씨가 발견, 경찰에신고했다。

容善양은 전날 하오7시께 학교에서돌아와 아버지 趙씨에게『안경알 한쪽이 깨졌으니 새것으로 사달라』고 조르다 趙씨가『나중에 사주겠다』고 하자 이를 못마땅히 여겨 종알거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 자기방에 처박혀 나오지않았다는 것이다。

볍씨·흙 섞어 가짜農藥팔아

서울시경은 12일 東大門區龍頭洞39의120 한원산업사대표 申東錫씨(36·東大門區龍頭1洞39의2·7)와 상무 柳森吉씨(38)등 2명을 농약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의하면 이들은 지난4월1일부터 볍씨와 흙을 섞어 가짜농약을만들어 인체에 무해하고 벼도열병에 특효인 농약이라고 속여 지난4월3일 양정우씨(38·충남論山郡 江景邑 彩雲洞447)에게 1천1백부대를 4만6천원에 판것을 비롯 26 7 4 4 [illegible] 1천8백여만원어치를 팔아왔다。

또 이들은 농약판매대리점을 내준다며 지난3월11일 구율재헌씨(36·大田市中區正林洞193의3)에게 1천4백만원을 받아 가로챘을 비롯 모두 3회에 걸쳐 1천8백50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도 받고있다。

공무원 昇進年限을 연장 6月~1年까지

내무부는 12일 지방공무원 임용령중 일부를 개정, 승진에 필요한 최저근무연수를 4급(총경3甲)과 5급(3乙)은 현행 3년에서 4년으로, 6급(4甲)은 2년6월에서 3년으로, 8급(5甲)은 1년6월에서 2년으로 각각 6월~1년씩 연장했다。

또 사무관승진시험합격기준을 앞으로 시험성적 80%, 승진후보자명부성적 20%를반영해서 근무성적이 좋은사람을 우대키로했다。

保育器서 자라던 新生兒 엉뚱한 두女人이 데려가

大邱서 親母 발동동…"내아이 찾아주오"

"가족인줄 알았다" 病院발뺌

【大邱=聯】保社部의뒤바뀐쌍둥이사건에 이어 산부인과병원 인큐베이터에 넣어기르던 미숙아를 병원측이 엉뚱한 사람에게 넘겨준 사건이大邱에서 발생했다。

大邱市東區屯山洞825 李玉씨(34)의 내연의 처 李貴모씨(23)는 지난달 30일밤9시께 大邱市中區東城路3街16 제일산부인과(원장 鄭元永·52)에서 여아를 분만했으나 체중 1.83kg의 미숙아로 진단이 내려져 이병원 인큐베이터에 넣었다。

李여인은 아기를 병원에맡기고 이틀후 퇴원했다가 11일하오5시께 아기를 보러 갔으나 아기를 딴 사람이 데리고 가고 없었다는 것이다。

병원측은 李여인이 출산했을때 병원에 자주 드나들던 30대와 40대여인 2명이 입원비 6만원을 내고 아기를데려가자 가족인줄 알고 내주었다고 해명하고 있다。그러나李여인은자기가족들은 아기를 찾아온 사람이 없다면서 보호자의 허락도없이 아기를 다른 사람에게 준 병원측에 아기를 찾아달라고 요구하고있다。

한편 李여인의 신고를받은大邱중부경찰서는 李여인이 결혼을 하지않은채 아기를 동거하고있는점으로 미루어 주변사람들의 소행일것으로 보고 수사를 펴고있다。

◇白鷺 한마리 農藥중독 신음… 응급조치

천연기념물 208호인 백로한 마리가 약물중독으로 신음중인것을 공군장병이 발견, 江原도 江陵시청에서 따뜻한 보호를 받고있다。

2년생인 이 백로는 11일하오3시께 江陵비행장부근논두렁에서 신음중 때마침이곳을 지나던 공군부대 장병들이 발견하여 江陵시청에 인계했는데 시는즉시 농약해독주사를놓아 응급처치하는한편 미꾸라지등을 메뉴로 정성을다해 하루가지난 12일현재 눈에띄게 건강이 회복됐다는것。【江陵=聯】

2백85만 前科말소

내무부는12일 본적지 시·구·읍·면에서관장하고있는 전과기록을 일제정리한결과 총3백23만여명의88%에 해당하는2백85만명의전과기록을 폐기해주었다고 밝혔다。

어린이大公園「놀이동산」 3년동안 1億원 脫稅

「하이랜드」代表등 2명구속

치안본부는 12일 서울하이랜드주식회사대표 朱永鎭씨(54·서울城東區廣壯洞362 워커힐 아파트52동501호)、전무 朴炳官씨(53·서울城東區君子洞261)등2명을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의하면 이들은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의표마기차등 놀이기구를 운영하면서 78년도 판매총액 2억4천8백여만원을 1억9천8백여만원으로기재, 누락금액인4천9백여만원에대한 부가가치세 법인세 방위세등 2천6백20여만원을포탈한것을비롯 탑승이용권 판매수익금을25%가량 누락시키는 수법으로 80년6월말까지 모두 2억1천8백여만원을 장부에서 누락, 1억1천4백80여만원의세금을 포탈한 혐의다。

이회사는 72년 11월 설립, 73년5월 서울시로부터 10년간 서울어린이대공원 놀이동산의 운영권을얻어 매년 4월부터 10월사이에 입대료를 서울시에 납입해 왔었다。

서울大도서관 再開

서울大는 지난29일 학원소요사태와관련, 폐쇄했던 도서관을 18일만인 오는15일부터 다시열기로 했다。

"해외就業" 2億사취

幽靈회사차려 2명구속…3백여명 피해

치안본부 외사범죄수사대는 12일 유령회사인 京鉄실업대표 任正鎬씨(53·서울城北區貞陵洞659의119)와 邊在鎬씨(49·서울城北區長位洞75의604)등 2명을 직업안정법 위반및 사기등 혐의로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任씨는 80년9월 자기집에 京鉄실업이라는 간판을 내걸고 ■씨가 지난6월초순까지 모집한 成平錫씨(운전기능공·서울東大門區信設洞山9)등 3백여명을 사우디아라비아의 유령용역회사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한사람에 60~80만원씩 모두 2억여원을 사취했다는것이다。

"한달 8百弗준다" 1百명 등치기도

서울지검北部지청 수사과는 12일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허위계약서를 내보이며中東에 취업시켜주겠다고 속여 1백여명의 근로자들로부터 8천여만원을 사취한 韓基錫(34·강남區瑞草洞신동아아파트1棟1007)安敎鎬씨(45·龍山區漢南洞599의1)등 2명을 사기및 직업안정법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씨(33)등 3명을 불구속 [illegible]

백신 保管관리 경위捜査

장티푸스接種사고 바늘 18개로 千명注射

保社部선 '일반적副作用 증세다' 밝혀

【江陵·安養=聯】검찰이 장티푸스 예방접종집단부작용 사고원인규명을 위한 전면수사에 나섰다。

春川지검 江陵지청은 이미 長省鐵岩중학교학생들의 집단부작용사고에 대한 수사를 이틀째 펴고있는데 이어 12일 水原지검 安在洙검사도 安養경찰서를지휘, 安養女商高생들의 집단부작용사고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水原지검은 이날 安養市보건소 방역계장 金成佑씨(46)、安養여상 양호교사 성진희씨(43)、간호보조원 崔미숙양(26)、주사를 맞았던 학생등 모두 7명의 관계자를 불러 접종경위를 조사했다。

검찰은 이날조사에서 백신을 접종할때 학생들에게 열이 있는가를 아픈 사람은 조사하지 않았고 3백86명의 학생들에게 20여개의 주사바늘로 비위생적 접종을실시했음을 밝혀냈다。

검찰은 또 백신의 주사량이 학교측과 간호원의 주장이 서로 엇갈리고 있는 점을 중시, 주사량에 대해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보조간호원 방양은 접종부위를 소독한후 학생1인당 백신 0.4cc씩을 주사했고 4개의 병중 3개의 병에 10cc정도씩남아 병원에와서 폐기처분했다고 말했으나 교감 이씨는 백신이 부족해 교사 20명중 18명은 접종을 못했다고말해 백신사용량에서 서로 엇갈린 진술을했다。

한편 春川지검 江陵지청 徐■■검사는 12일「사고당일 간호보조원들이 예방접종을 할때 주사기와 주사바늘을 소독하지않고 사용해 부작용이 일어난것」이라고 밝히고「숨진 羅銀姬양(14)의 사인과 백신의 이상유무등에 대한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감정결과가 나오는대로 간호보조원들의 형사처벌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徐검사는 예방접종을 실시한 ■玉子양(23·長省■■의원 관리요원)등 간호보조원 3명이 매회 접종때마다 주사바늘을 교체또는 소독해야하는 접종수칙을 무시하고 8개의 주사기와 18개의 주사바늘로 백신22병을 철암중·고생 1천3백78명에게 접종을했다고 밝혔다。

한편 보사부는 이번학생들의 연쇄집단부작용사고가 일반적부작용증세와 비슷한 경증세라고 밝히고있지만 병원에 입원한 학생들은 회복이 늦어져 12일하오 현재도 22명의 학생들이 계속입원치료를 받고있다。 입원학생은 安養女商高 학생들이 20명、鐵岩학생이 2명이다。

장티푸스예방접종후 1명이 숨지고 3백53명이 집단부작용을 일으켰던 鐵岩중학교에는 퇴원후에도 많은학생들이 완치되지않은채 집에서 후유증으로 앓고있어 결석생수가 늘어나고 있다。

보사부는 12일 최근 경기도 安養과 강원도 長省에서 발생한 학생들의 장티푸스예방접종 집단부작용 사고는 단시간내에 무리하게 많은 인원을 접종했고 접종전 예진(豫診)이 제대로 지켜지지않았으며, 접종후에도 과로와 지나친 운동등으로 건강관리를 잘하지 않은데서온 1차부작용이라고 밝히고 잇따른 집단부작용은 어린중학생들과 여학생들의 과민연쇄반응으로 확산된것이라고 발표했다。

千命基보사부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번 부작용사고에대해『국민들에게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장단기대책을 세워 이같은사고가 다시 발생하지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고 예방백신에 대한 최종검정과 사망자 부검결과처리등이 모두 끝나는 오는 25일께부터 접종을재개할방침이라고말했다。千장관은『이제까지실시한 조사결과로는 약품자체나 수송및 보관상에는 아무런이상이 없다』면서『숨진 羅銀姬양(14·강원長省 鐵岩中)의 경우는 극도의 쇼후 쇠약자로 접종수칙상의 금기사항을 무시한데서 빚어진 사고였다』고 밝히고 羅양을제외한 부작용학생은 접종후 있게마련인 일반적인 후유증의 범위를 크게 벗어나지 않는 환자들이라고 주장했다。

法務部, 矯導행정改善策 마련키로 脫走관련64명懲戒

법무부는 南部지원 법정집단탈주사건에 대한 검찰수사가 마무리됨에따라 지금까지 드러난 교도행정상의 문제점 분석과 앞으로의대책및 개선책을 마련하는 작업을하고있다。

법무부는 이러한 대책의일환으로 지난 9일 永登浦구치소장、보안과장、총경과장등 12명을 징계처분한데 이어 12일 다시 52명을 파면、해임、감봉처분하는등 모두 64명에대한 징계를 단행했다。

制憲의원 權泰郁씨

제헌국회의원 權泰郁씨가 11일하오2시 서울江南區 ■室시영아파트4동442호자택서 별세했다。향년75세。발인 13일상오10시 자택。장지 경기高陽郡 일산기독교 공원묘지 연락처 ■0030

표주박

두눈이 멀리 떨어진 患者 高大병원 국내 첫手術성공

○…비정상적으로 넓은 양쪽눈의 거리를 좁히는 무개안면골성형수술이 국내최초로 성공됐다。

○…高麗大부속병원 성형외과팀(성형외과 丁鎔殷과장)은 지난달 6일 안면기형 환자인 李■■양(21·서울)에 대한 수술을 실시, 李양은 36일이 지난 12일현재 아무런 합병증의 병이없이 정상을 되찾아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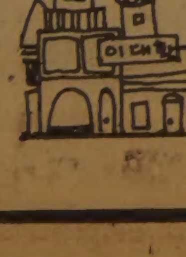
KIM'S
카메라및 트로피
각종카메라 전자제품·판매수리
여권사진 즉석촬영
619 BLOOR ST. W. TOR.
☎ 534－1085

종합보험
•생명보험 •자동차보험
•상해보험 •R.R.S.P
•빌딩·상점
*10년이상의 경험
*모든 보험에 관한 문의 환영
최저의 프레미엄 보장
Stan Herman
(B)425－4994
(R)293－170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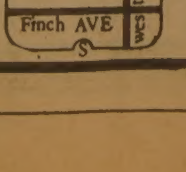
T. P. ADVERTISING GROUP
비우종합광고회사
●간판부: 각종간판·윈도우 싸인·쇼-카드전문
●그래픽 디자인부: 신문광고·상업디자인·비지네스및 개인명함 회사나 단체 마-크 각종포스터및 팜프렛
●인쇄부: 도서(책자)·편집및 출판(광고지 포함)
637A BLOOR ST. W. TORONTO.
☎: 535-0647. 0545
대표 송 관 헌

이대환 不動産

주택과 사업체에 관한
일체의 문의나 거래는·
REAL ESTATE BROKER
MORTGAGE BROKER
이 대 환

금주의 새 리스팅
도나스 샵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주매상 $7500. 렌트 $2800. 리스21년 Asking $279,000.
다운페이멘트 $160,000
버라이어티
주매상 $7,200. 렌트 $1120. 리스3년+5년(3베드룸포함)
주매상 $5,500. 렌트 $1,300. 리스2년+5년
주매상 $12,000. 렌트 $1200. 리스4년+5년
DRIVE IN햄버거 SHOP(3주전에 Open)
주매상 $8000. 렌트 $3000. 리스10년. Asking $269,000
다운페이멘트 $80,000(스토아 오픈시간 10시~10시)
일요일 쉬는 백화점안에 있는 Fish & Chip
주매상 $7,000. 리스6년반. 렌트 $2350+Common경비
오픈시간 오전10시~오후9시. 토요일10시~6시.
일요일·공휴일은 문닫음. Asking $250,000
다운페이멘트 $120,000
세일즈맨 신 영 하 R) 423－3114

주소: 609 BLOOR ST. W.
B) 535－1251. R) 536－4250

NORTH YORK AUTO BODY
20년의 경력을 자랑하는
■사고시 보험관계 일체처리

★24시간 토잉써비스★630－0000·
어느때를 막론하고 토잉해 드립니다.
●사고차량 완전수리
●페인팅(oven baked finish)
●수리중 차량대여
●각종차량 일체취급
Towing 완전설비된 Licensed Oven Baked Finish
교포우대
(B) 749－0555
(R) 881－4053
215 TORYORK DR.
1 block North of Finch
West of Weston Road.
송 대 헌


東山高, 7회에 7得點

春川高 실책유발…9대3 大勝

◇2盜실패 東山高—春川高대전。東山2회말 공격 2死후 포볼을 고른 7번 金鍾文이 2루를 훔치려다 태그아웃되고있다。春川 2루수는 韓尙濱。

東山高가 春川高에 역전승을 거두고 제36회 청룡기쟁탈 전국중고야구 선수권대회 1회전 관문을 통과했다。東山高는 12일 서울운동장서 벌어진 대회3일째 경기에서 春川高에 6회까지 3안타로 눌리며 3-2로 뒤지다가 7회말 4안타 3四死球, 적실을묶어 대량7점을얻어 9-3으로역전승했다。

포볼과 에러로 3點 횡재

徽文高도 가볍게 大田제압 7-2

青龍旗야구

徽文高는 우완에이스 李明國이 大田高 타선을 산발 6안타로 누르고 2회초 6번 朴完淳의 적시 좌월2루타등 3안타로 3점을 얻은뒤 4회초에 2점, 8회초 2사만루에서 포수의 1루 견제악송구로 2점을 보태 7-2로 대승했다。

東山高는 7회말 하위타선의 3안타로 無死만루를 만든후 적실로 동점을 만들고 연속四死球로 역전의 2점을보태며 계속된 無死만루에서 3번 呂森九가 주자일소 좌중월 적시3루타를 날리고후속땅볼로생환, 9-3으로점차를 벌렸다。

東山은 7회말 선두6번 金洛震, 7번 金鍾文가 연속 중전안타로 나갔다。1점차로 지고있는 상황이어서 보내기번트가 예상됐으나 대담하게 강공을펴 8번 朴鍾眞의 좌전안타로 無死만루。여기서 또다시 강공, 9번 李厚爀이 평범한 내야땅볼을 쳤으나 春川2루수 韓尙濱이 땅볼하는바람에 3-3 동점을 만들고 無死만루의 호기가 계속됐다。이때 春川은 어처구니없이 결승점을 내주고 자멸했다。2루수 韓을 구원투판시켜 불을 끄려했으나 韓은 포볼을 내주고 제자리로 돌아갔다。韓鳳鉉가 마운드를 물려받았으나 東山3번 좌타 呂森九는 통렬한 주자일소 3루타를 날리고 후속땅볼로 생환, 9점째를 올렸다。

◇제3일전적 ▲고등부1회전

춘천고	200	010	000	3
동산고	100	000	70×	9
휘문고	030	200	020	7
대전고	100	000	001	2

▲중학부1회전

배문중	010	004	00	5
충남중	002	020	00	4
전라중	100	000	10×	2
대구중	000	000	00	0

한국、蘇와 首位다툼

世界洋弓대회 黃淑珠·朴英淑 활약

【몬타알라(이탈리아) 11日發=聯】한국은11일 이탈리아의 몬타알라에서 속행된 제31회 세계양궁선수권대회 여자부 이틀째 경기에서 黃淑珠(계명대)와 朴英淑(한국체대)이 각각 1천2백47점을 기록, 싱글라운드종합에서 5위를 달리고있다。여자부단체종합에서는 한국이 黃과 朴의 활약으로 3천7백14점을 기록, 17점차로 1위의 蘇聯을 뒤쫓고 있으며 첫날 선두에 나섰던 中共은 한국과 동률2위를 달리고 있다。

金珍浩·남자팀 不振

그러나 한국은 기대를걸었던 前대회챔피언 金珍浩(한국체대)가 1천2백20점으로 10위권내도 끼지못하는부진을 보이고있으며 남자선수들도 모두 10위밖으로 밀려나고있어 상위입상이 힘들것으로 보인다。한편 남자단체전서는 美國이 3천7백95점으로 1위를, 蘇聯과 핀란드가 2、3위를 달리고있다。

◇제2일전적 ▲여자개인 싱글라운드=①루루조바(소련) 1264 ②메릴루오토(핀란드) 1253점 ③립리(호주) 1250 ④홍·푸(중공) 1249 ⑤黃淑珠 1247점 ⑥朴英淑 1247점 ▲여자단체종합=①소련 3731점 ②한국 3714점 ③중공 3714점

女子단체종합

百濟女商2승 전국種別핸드볼

12일 光州 실내체육관서 속행된 제36회 전국종별핸드볼선수권대회 3일째 여고A조서 百濟女商은 강적 忠州女商을 19-13으로누르고 2승으로 선두에 나섰고 B조서 全南體高는 靜山女商을 19-8로 대파하고 역시 2승으로 선두를 달리고있다。

◇제3일전적 ▲남고A조 동공 20(10-4, 10-8)12 인천체고 (1승1패)(2패) ▲동B조 동산 18(8-8, 10-10)18 부아산 (1승1패)(1승1무) ▲여고A조 상제 19(8-8, 11-5)13 상주여 (2승)(1승1패) ▲동B조 남고 19(10-2, 9-6)8 부산여상 (2승)(1승1패) ▲남중부 무학 14(7-7, 7-6)11 광운중 (2승)(2패) ▲여중부 효광여중 15(7-8, 6-4)10 동방여중 (1승)(2패)

제1회 월드게임 내달 美서열려

한국、5개종목 41명출전

대한체육회는 오는 7월25일부터 8월3일까지 美國산타클라라에서 열리는 제1회 월드게임에 출전할 한국대표선수단55명의 명단을 확정, 12일 발표했다。한국선수단은 李敏載단장을 비롯, 본부임원6명, 경기임원8명, 선수41명(남38, 여3명)으로구성되었으며 14개 경기종목 가운데서 야구, 볼링, 배드민턴, 태권도, 복싱 등 5개종목에 출전한다。

◇한국선수단 ▲본부임원=李敏載(단장) 金相謙(총감독) 愼仁鋒(총무) 康福昌(경기) 李基哲(섭외) 朴熙宿(의사) ▲경기임원=宋晃洙 金秉宇 裵乘徹(야구) 金鳳燮(배드민턴) 盧相錫 宋義根(볼링) 金禧(볼링) ◇선수 ▲야구=李晉熙 河基龍 黃圭奉 任英均 鮮于大泳 崔東原 金始眞 沈載元 金鍾雨 金貞洙 辜大雄 千普成 金用熙 金在博 吳大錫 金一權 李海昌 柳斗烈 張孝祚 金泰淵 金知元 申昌鎬 金東吉 金裕賢 金鍾沃 ▲배드민턴=黃善愛 金練子 ▲태권도=韓基文 梁泰模 鄭範秀 李淳傑 金英國 吳日男 李東濟 鄭顔 朴鍾萬 ▲복싱=金永廷 田敬玉 ◇국제심판=金永培(복싱)

「고장난 花郎」기능발휘가 문제다

—大統領盃 국제축구 豫選통과에 全力

得點源인 崔淳鎬등 빠져 強敵 아르헨·西獨 뚫을지

"大會 끝내면 新進 과감히 기용"

◇예선통과의 무거운 짐을진 花郎의 사령탑 金正男코치。예선통과에대해 「최선을 다하면 좋은결과가 나타날것이다」고 말했다。

지난해 5월부터 축구대표 花郎을 이끌어온 金正男코치·스태프는 이번 대통령배 국제축구대회를 재기의 발판으로 삼아 花郎을 재무장하고 싶다고 밝혔다。쿠웨이트 월드컵 예선실패속에서 큰 대회를 앞두고 코치와 트레이너의 표정은 의외로 담담했고 목소리도 가라앉아 있었다。

『대통령배대회가 끝나면 花郎전력을 보완하고 2~3년후의 각종 국제대회에 대비하는 작업이 따를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내가 대표팀을 계속 맡게되든 안되든 예측할수없는 상황이지만 2~3년후에는 크게 오를수있는 선수들을 파격적으로 발탁하는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이런 의미에서는 대통령배대회가 花郎의 끝이아니라 시작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花郎은 정작 이 예민한 崔淳鎬와 趙廣來등이 부상으로 빠지게 됐다。20명 엔트리중 GK 趙炳得 FB 崔鍾德 FW 丁海遠 吳錫載 趙鏞衍등도 고장난 상태여서 花郎의 힘을 모조리 발휘할수 없게 되었다。

선천가상으로 볼 그라운드의 花郎은 예선에서부터 격렬한 경쟁을 벌이지않을 수없게 되었다。花郎이속한 A조에는 유력한 우승후보인 아르헨티나(라싱코르도바)를 비롯하여 西獨(자르부뤼켄) 프랑스(메스)가 끼어있다。

金코치는 예선통과 문제에 대해 『프랑스와의 개막경기때부터 한게임 한게임에 최선을 다하겠다。예선통과가 쉽지않은 과제이긴 하지만 최근 부상선수들이 회복세를 보이고있어 어느정도 기대가 된다。부상중인 趙炳得과 丁海遠이 예상했던것보다 회복이 빨라 예선에 출전할수 있을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국제경기경험이 많은 趙廣來·朴成華 李榮武가 중심이 되고 李康助를 비롯한 선수들이 투지를 살리면 예선통과목표는 달성될수 있다고 강조했다。

花郎코칭스태프가 구상하고 있는 기본 포메이션은 ▲GK 崔仁榮(趙炳得) ▲FB 朴景勳 張外龍 洪性號 朴成華 ▲HB 李泰昊 李榮武 ▲FW 邊炳柱 李康助 趙廣來。

【[illegible]기자】

全北(남자) 서울(여자) 종합우승

東仁川高, 작년覇者 心印완파

市道대항 卓球

【全州=李廷元기자】제7회 국무총리기쟁탈 전국남녀시도대항 탁구대회에서 全北과 서울이 각각 남녀부 종합우승을 차지했다。全北은 7일 全州市체육관에서 폐막된 이대회서 남중부(萬頃中)와남대부(全北大)서 우승, 남국부(여산국교)서 준우승을 차지하여 총45점으로 남자부 종합우승을 차지했으며, 여자부에선 여중부(文泰女中)여대부(同德女大) 우승과 여일반부(서울信託)준우승을 차지한 서울市가 42점을얻어 종합우승했으며 全北이 40점으로 준우승했다。

한편 남고부결승에서 東仁川高는 주전 鄭聖秀 宋勳培의 활약으로 작년도 우승팀 慶北心印高를 4-0으로 완파하고 이대회 첫우승을 차지했다。

◇종합성적 ▲남자부=①전북 45점 ②경북 35점 ③서울시 ③경기 30점 ▲여자부=①서울 42점 ②전북 40점 ③전남 32점

◇최종일전적 ▲남고부결승 경기동인천 4-0 경북심인 ▲동남중부 전북만경 4-2 충남대신 ▲동여중부 서울문영 4-1 경기안양 ▲여일반 제일모직 4-0 외환은행 (2승1패)(1승3패) 부산코카콜라 4-3 서울신탁 (3승)(2승1패) 제일모직 4-2 부산코카콜라 (3승1패)(3승1패) ▲남대부 전남대 4-1 숭전대 (4승)(2승2패) 전북대 4-2 한성대 (3승1패)(1승3패)

◇WBC 헤비級타이틀戰 계체량 프로복싱 WBC 헤비급 챔피언 래리·홈즈(右)가 도전자 레온·스핑크스(左)가 지켜보는 가운데 저울대에 올라 몸무게를 달고있다。【디트로이트 11日 AP聯=聯】

崔上鎬 선두나서 快男 오픈골프

로얄 컨트리서 12일 속행된 제5회 快男오픈골프 선수권대회 3라운드경기서 전날2위였던 崔上鎬(반포)가 72타로 호조, 토탈 2백13타로 선두를 달리던 홍·프로 朴政雄(로얄)을 제치고 선두에 나섰다。朴政雄은 74타로 부진, 토탈2백14타로 2위로 밀려났다。노장 韓長相은 저력을 과시, 3위로 부상했다。한편 여자부문서는 具玉姬(한양)가 2백28타로 선두를 고수했다。

◇제3라운드기록 ①崔上鎬(반포)213(72-69-72) ②朴政雄(로얄)214(72-68-74) ③韓長相(PGA)217(72-75-70) ④康世寶(신세계)218(71-73-74) ⑤孫興洙(반포)219(72-70-77)

仁昌高、文一꺾고覇權

서울市 종별排球 李文燮·孫錫仁 강타작렬

제1회 서울시장기쟁탈 종별 배구대회겸 전국체전1차 예선대회 사흘째경기가12일 장충체육관서 속행, 仁昌高는 文一高와가진 단판 결승전에서 풀세트 접전끝에 힘겹게 승리, 남고부 우승을 차지했다。仁昌은 李文燮·孫錫仁등이 원목에서 타점높은 강타를 퍼뜨리면서 블로킹서도 맹활약, 세터 李載求의 재치있는 토스를바탕으로 적시적으로 달라붙는 文一에 신승했다。

여고부서는 一信女商이 崇文女商을 3-0으로 가볍게 제쳐 3연승으로 선두를 지켰으며 中央女高는 金貞玉 玉順두 콤비의 활약으로 陽女高를 스트레이트로 제쳐 3승1패로 2위권을 차지하고있다。

◇제3일전적 ▲고등부결승 인창고 3(15-11, 13-15, 15-1, 12-15, 15-13)2 문일고 ▲여고부 일신여상 3(15-5, 15-12, 15-4)0 서문여고 (3승)(3패) 중앙여고 3(16-14, 15-3, 15-2)0 한양여고 (3승1패)(3패) ▲여중준결승 일신여중 2(15-3, 15-1)0 서문여중 성암여중 2(15-4, 15-2)0 한양여중

世界공기총 大會 내달 도미니카서

사격연맹은 오는 7월30일부터 도미니카에서 열리는 제2회 세계공기총 선수권대회에 파견할 남녀 대표선수를 6월말까지 선발, 7월초부터 훈련에 들어가기로 했다。

韓社大 8체급이 準準決에

보성住宅도 一般 9체급서

全國태권도 2일째

【大邱=聯】제16회 대통령기 쟁탈 전국 태권도대회 2일째 경기가 12일경북실내체육관에서 속개, 大邱韓社大는 대학부 10체급중 8체급서승리를 거둬 준준결승에 진출함으로써 새로운 강자로 부상했다。또 일반부에서 대구보성주택은 10체급중 9체급을 석권하고 8강에올라 오텐반에 경북세를 보였다。고등부에서는 京畿高, 全南體高, 南大田高등이 3체급씩 준결승에 올라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배구코치 崔勇進씨 쿠웨이트로 進出

전鮮京合纖배구팀감독 崔勇進씨가 쿠웨이트에 진출케됐다。쿠웨이트의 카데시아클럽코치로 초청을 받은 崔씨는 2년동안 월2천2백달러에 월말께 떠날예정인데 앞으로 주택·차량을 제공받는 조건이다。

日東京서 9일부터 페杯테니스 11월에

국가대항테니스여자대회의 최고 권위인 페더레이션컵쟁탈 81년도국제여자테니스대회가 오는 11월9일부터6일간 日本東京의 다마가와엔테키트클럽에서 열린다。

11일 국제테니스연맹(ITF)이 대한테니스협회에 보내온 전문에 따르면 이번대회에는 우리나라를 비롯, 세계 29개국이 출전신청 마감일인 8일 이전에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이중 中共이 대회사상 처음으로 출전신청을 해와 테니스에서自由中國-中共의 첫대결이 벌어질것 같다。

그런데 이번대회에서는 종전과달리 출전팀이 32개국에 미달되는 29개국이기 때문에 예선은 거치지 않고 바로 본선을 벌이게된다。

방콕아시안게임등에서 韓國은 파대전, 평평한 전적을 보였던 中共은 그동안 많은 기술향상을보여 위협적인 상대가 되리라 예상되며 그외 美國·소련등 명문국가는 우리보다 한수위의 전력을 보유하고있는것으로 알려졌다。

泰陵수영장 일반 公開

15일부터, 一般 1천원

泰陵국제수영장이 15일부터 일반에게 문을열고 일반인들에 공개된다。평일에는 12시부터 하오 6시까지, 그리고 일요일과 공휴일에는 상오9시부터 하오5시까지 문을여는데 하루 입장료는 학생8백원, 일반1천원이다。또 단체의 경우는 학생이 1인당 7백원, 일반8백원이며 회원제는 일반이 월1만2천원, 학생은 1만원이다。

▲남국준결승 도송 2-1 신천 곡천 2-1 명봉 ▲여국준결승 추송 2-0 곡천 계예 2-0 출신

알찬효과를 보는 한국일보 안내광고란

블론디 딘·영 作 (本社特約·海外漫畫)

가나안상사
무료견적, 무료1해부, 무료공사, 썬공전, 카텐, 카펫 브라인드, 각종카바.
유 원 덕
2390 LAKE SHORE BLVD. W.
☎ : 252-4857

新風土記

吳贊植 〈作家〉

論介祠堂 〈全北 長水〉

갓스물에 散華

를 했을정도였다.

부친이 돌아가자 집안은 매미껍질처럼 된다. 그만큼 가정이 빈궁하여 숙부 朱達武에게 얹혀 살게 되는데, 이 숙부의 간계로 論介는 鳳川마을에 사는 金風憲의 민며느리로 매매당한다. 신랑감은 백치에다 불구자였다고 한다.

논개는 이 사실을 알고 외가(咸陽郡 西下面風亭마을)로 피신한다. 얼마 뒤에 金風憲의 고발로 母女가 체포되어 長水현감 崔慶會의 재판을 받게된다. 그 결과 숙부의 간계임이 드러나 이미 숙부는 피신해버렸으므로 金風憲의 재산상 손해는 모른다하더라도 [illegible]

四柱單子를 받고 정혼을 회피한 罪科로 모친은 5년간 縣廳奴婢로 있을것을 언도받는다.

이때 論介는 당돌하게 어머니를 대신해서 형을 받겠다고 자청한다. 崔현감은 그 효성에 탄복한 나머지 2년간으로 감형시킨다. 崔현감의 내외는 용모가 단정한 論介를 이때부터 친자식같이 보살핀다. 論介는 이때 인품이 출중했던 崔현감의 가르침을 받아 애국심이 싹튼다. [illegible]

[illegible]

○우리민족의 義人 論介는 長水에서 태어난 義烈이다. 祠堂인「義巖祠」엔 以堂 金殷鎬화백이 그린 초상이 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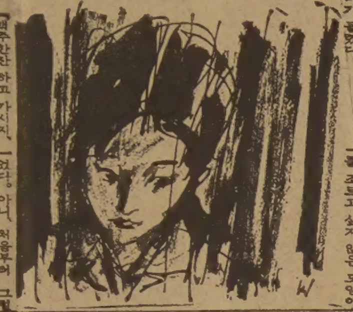
모든 좋이 있는 生 〈120〉

趙善作 作 /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㉙

비로소 나는 자가한 긴장으로부터 놓여나는 듯한 느낌이었다. 뜨거워졌던 몸이 식으면서 흘린 땀이 냉기로 변해 바늘 끝처럼 피부를 찔렀다.

[illegibl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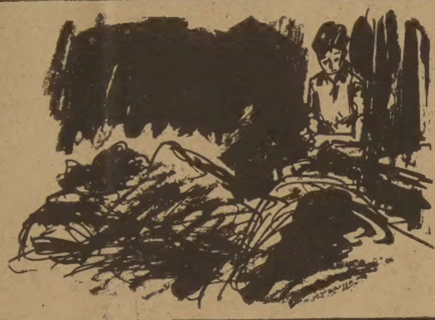


모든 좋이 있는 生 〈121〉

趙善作 作 / 禹慶熙 畵

그림자놀이 ㉚

[illegible]



구 인

유경험자 지렁이 잡이 구함
5명에 한하여 승용차로 모심.
☎ : 881-1962; 221-7500

경험있는 재봉사 구함 : 일할 수 있는 좋은 조건과 지불, 우수한 이익. 600 SPEEDROCK DR. DOWNSVIEW
☎ : 630-7777 LOUIS

입주하셔서 애기 봐 주실분 구합니다 :
미세스 하
☎ 665-4853

스토아 여자 캐쉬어 구함
(토, 일요일, 12~8시까지)
☎ : 921-0624

20세 전후한 남녀
풀타임 캐쉬어 구함.
☎ 742-0800

경험있는 지렁이 잡으실분 : 대우좋음
MR. JIM OR NICK 1000마리당 $19~$25
☎ 531-0474

지렁이잡이 원함(유경험자) :
윈치와 웨스톤지역, 최고가격
☎ 243-7736 미스터 리

유경험자 지렁이잡이구함 PETER KOTSISAS LIVE BAIT 좋은 농장. 승용차로 지렁이 잡으실분 구합니다. 좋은 대우 ☎ : 533-0910 피터

버라이어티 스토아에서 일할
경험있는 남자헬퍼 구함
☎ 532-6160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니저구함 :
$10,000보증금 요함
☎ : 745-1255

재봉사 구함(LADIES' SPORTSWEAR)
번봉, 오바로꾸, 단, 풀타임, 파타임 or PIECE WORK
292 PARLIAMENT ST. AT DUNDAS ☎ : 362-2300

캐비넷 만드는데 경험있는 분 구함
좋은 봉급과 조건
☎ : 416-742-7725

재봉사 구함 (남·여)
• 약간명 • 유경험자 • 좋은 대우
• 핸드백 만드는일
인터뷰 원하시는 분은
CALL 251-2543 AVIS

급 구
메네저 구함, 바쁜 다운타운 지역.
6시이후 전화요망
☎ : 598-2546 미스타 고

할머니 돌봐 주실분 구함
오후12시부터 밤10시)
☎ : 531-7556

스토아 매니저 구함
$15,000, 보증금 요함, 수입 $3,000 개런티
☎ : 635-9585

GENERAL FACTORY HELPER NEEDED
덕씨×401지역 미시사가
공장에서 일할 분 구합니다.
☎ : 625-1433

매매및 양도

가게급매 :
주매상 $5400(로타리오 있음) 리스3년
☎ : 222-2848

벡커 프렌차이즈 스토아 매매
2372 WESTON RD.
☎ : 249-3546

밀크 버라이어티스토아 매도
노력하면 발전성이 있음
☎ : 783-6039

아이스크림 가게 :
적은 자금으로
2700 KIPLING NORTH PLAZA

프렌차이즈 벡커스토아 매매 :
1169 WOODBINE AVE.
☎ : 423-7939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주매상 $4600+로타리MACHINE, 스탁 물게지 가능함
3240 EGLINTON E. (MARKAHAM)

그로서리 스토아및 빌딩 팝니다 : 이층 벽돌 건물이며 장래성이 많고 TUCK SHOP보다 더 좋은 위치에 있음.
☎ : 781-7080 458 CALEDONIA RD.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좋은 위치, ASKING $20,000+스탁
☎ : 844-2922 392 KEER ST., OAKVILLE

FISH & CHIPS스토아매매 : 다운타운내에 좋은위치
리스5년, 렌트 $700, 오전10~7 : 30(월~금)
ASKING $45000 ☎ : 366-1332

버라이어티 스토아 팝니다 :
주매상 $2800, 렌트 $340, 리스5년, 2층에 2베드룸 : $275
☎ : 635-1038

바라이어티 스토어 급매
가장 적당한 Offer를 주시는 분에게 팔고자 함.
☎ : 465-4003

성업중인 햄버거 샾 급매
다운다운지역
☎ : 535-2804

그로서리 가게 팝니다 :
주매상 $4500이상, 리스3년+5년 옵션
☎ : 769 5956 3261 DUNDAS W.

버라이어티 스토아 매매 : 주매상 $6200~$6500, 렌트 $590 (스토아+2베드룸아파트)+로타리오 기계, 리스86년까지 스탁은 물게지로 가능 사정에 의해 급매코자 함 3884 BLOOR W.

①번잡한 다운타운 지역에 자리잡은 버라이어티스
주매상 $3,500, ASKING $29,000
②하드웨어스토아(DANEFORTH AVE.)
주매상 $2,500, ASKING $39,000+스탁
CALL : TRUSTWELL REALTY REALTOR
☎ : 361-1226

번잡한 노스·욕 몰안에 있는 스토아 매매
신선한 쥬스, 요쿠르트, 아이스크림, Fast Food취급
자동기구 완전 구비되었음, 남편의 직장전근상
매매코자 함. 그로스 Profit : 주매상 $1500의 73%
Asking : $40,000 ☎ : 249-3914
(CALL ONLY 7 : 30PM to 10 : 00PM) ZARINA

번잡한 PLAZA안에 완전설비된 인컴 택스 서비쓰
800명 이상의 고정 외뢰인 있음. 정년 퇴직상 팔고자함
LOW렌트, 좋은 리스, Asking $6,500
(모든 가구와 사무실 장비포함) ☎ : 244-9987

카펫·카텐

카펫 크리닝 •카펫 •소파 •웨어 •타일 •하드우드
439-6277 박 | 최신 스팀샴푸 크리닝 (스트리핑 & 왁스)

이삿짐및 운송

각종운반및이삿짐 피아노, 쿨러
☎ : 630-6602 다 라 운 수

간 판

각종 고급간판 제작및 수리(Citylite Signs Co.)
777 Warden Av. 751-9236, 757-2106 홍 진 표

꽃 집

꽃 집 크로스웨이(구 클레어리)
2340 DUNDAS ST. W.
(B) 535-1355, (R) 757-0905 남파·김

〈제인·파크 꽃집〉
*각종 꽃종류, 조화, Plants취급. *꽃꽂이, 생일, 결혼, 장례꽃 전문. *어디든지 배달가능합니다.
☎ : 769-0609 여 정 용

다우스 꽃집(DAWES FLORIST)
●각종 어랜지먼트 & 각종플랜트 ●각처주문배달함
464 DAWES RD. (Victoria Pk. & St. Clair)
☎ 751-5851 이 동 환

정 은 꽃 집 MARKLANDWOOD PLAZA안
4335 BLOOR ST. W. Etobicoke
① 모든 축하 꽃꽂이와 결혼, 장례꽃 전문
②바구니 종류와 꽃에 관한 모든 물품구비
☎ : 622-8516(B), 279-3719(R) 허소피아

인 쇄

TOP PRINTING CO. LTD.
각종인쇄 엽가봉사, 최신의 장비및 기술
96 REXDALE BLVD. ☎ : 746-0675 박 종 남

미 용

킴스미용실
(B) 532-7094, (R) 248-2437 (코리아하우스 뒤)

소니아미용실 신부화장, 남녀컷트, 파마전문.
2085 LAWRENCE AVE. E. JOVAN PLAZA UNIT 3
(우체국 옆) (B) 759-8854, (R) 755-2759 미세스 허

크리스티미용실 (크리스티 서브웨이 건너편)
남녀 노소 커트, 셋트, 파마 전문
727 Bloor St. W. (B) 533-2569, (R) 967-1518 미세스 박

시설및 수리

L. N. ELECTRIC MOTORS LTD.
각종 전기 모터 수리및 신 중고품판매(40여년의 연륜)
☎ : (B) 661-5667, (R) 742-9450 MR. 김

TV출장 수리
☎ : 431-0102 MR. 박

자동차, 집유리 설치, Repair합니다.
보험청구등 자동차 실내장치도 합니다.
MOON'S AUTO TRIM & GLASS LTD.
☎ : 633-0656(B), 493-7185(R)
정 해 문(핀치×킬)

악기점

피아노 조율및 손질
이동훈(서울음대 졸)
☎ : 781-0200

SOO, PIANO SERVICE 222-4662
SIMSON'S의 써비스를 독점 대행하고 있는 회사.
액숀조정, 건반, 캐비넷칠,조율 중고매매. 김 수 용

피아노 : 수리, 조율, 재생, 운반 중고 피아노팝니다
PIANO, TECHNICIAN
☎ : R) 636-1430, B) 783-6871
1547 EGLINTON AVE. W. 이 상 철

에어콘·히팅·냉장고

각종냉장고(가정용및 상업용)
ELECTRIC STOVE수리전문
☎ : 466-4304, 469-3341 박 기 철

냉장고, 냉동기, 에어콘
(시설및 수리)
☎ : 221-5441 센츄리 냉동(원종성·이인식)

에어콘·냉동·전기·히팅·세탁기
시설·판매·수리
• 정확한 진단 ◆예방및 각종 고장 정비
• 정확한 정비 ■캐나다 최상급 자격증 소지
24Hour Service
☎ : 366-5655 531-5440 이 황 영

자동차수리

라지에타 개스탱크·히터·워터펌프 수리
CITY WIDE RADIATOR CO.
(B) 245-1978 (R) 248-6032 김용환

자동차 수리 일체 :
20 ROGERS RD.
☎ : 651-9324(B), 226-5430(R) 변 달 원

ANCHOR AUTO BODY
● 완전한 차체수리 ● 무료견적
● 두꺼운 페인팅 ● 토잉 써비스
● Rust Proofing
846 RICHMOND ST. W. TOR.
☎ : (B) 862-1433, (R) 493-8792 송 창 섭

한방원

침 뜸 디스크, 좌골신경통, 관절염(내장질환)
진료시간 : 매일10AM~8PM ☎ : 922-7090
700 Ontario St. #517 (St. Jamestown) 박영숙

집·방세·하숙

1 베드룸 아파트먼트 FOR렌트
킬과 던다스 지역
☎ : 743-4787, 960-6263 미스타 최

기 타

한국미술공예 원함
당신이 한국 미술품이나 공예품의 수입상이거나, 도매, 소매를 취급하는 분이라면 새로운 국제시장에의 비즈네스 길을 열지 않으시렵니까?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아래 전화로 연락을 바랍니다.
☎ : (416) 598-1414 SYLVIA ZINGRONE

광고료·구독료를 지불하실땐 간편한 CHX. MASTER CHARGE를 이용하세요. 전화로 번호만 알려 주시면 됩니다.

〈꽁 뜨〉

손 자

서 만 수(신춘문예 단편 당선자)

「아버님, 무얼찾으세요?」
옷장을 뒤적이던 장노인은갑자스레묻는 며느리말에 흠칫 놀란다.「응! 작년에입던잠바를 찾는데 그게통 어디에 박혀 있는지 찾을수가없구나.」
「잠바요? 그건 동철이방에있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잠바는 왜 찾으세요? 어디 나가시려구요?」
「으응, 아니다. 그냥 시내에 나나가 한바퀴 바람이나 쏘이고 들어오려고…」
「아니! 웬일이세요 아버님? 누구하고 동행이라도…. 평생 바깥출입도 잘 안하시면서…」
「응, 거Finch아파트에사는김영감있지? 그친구가 오늘저녁이나 같이하자는구나.」
「아! 가게하는 김씨댁영감님요?」
「응, 그래」장영감이 잠바를 찾아입고 있는 중에 나갔던 며느리가 다시 돌아온다.
「아버님! 이거 20달러인데요. 나가시면 쓰세요. 저녁을 자시더라도 김영감님에게 신세지지마시고요」그리곤장노인에게 건네준다.
버스안에서 집에서 가져온 신문을읽다 접어버린 장노인은 무심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면서「참! 오랜만에 시내구경 나가는군. 앞으로는 자주 시간을 만들어 나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창밖에 비치는 푸르름이 한껏기분을 돋아 주는것같기도 하다.

× × ×

장노인이 김영감에게 전화를 받은것은 바로 일주일전이다. 그날도 마찬가지로 집근처를 어슬렁 어슬렁 걸어다니다가 막 집에들어와 TV스위치를 만지려는데 전화벨이 울렸다.
「여보세요!」「거기 죄송하지만 장영감님좀 바꾸어 주십시오.」
「전데요, 누구시죠?」
「아! 장영감이오? 나 Finch사는 김영감이오. 그래 그동안 별고없으셨오?」
「아니, 김영감이 웬일이요? 이리 전화를 다하고…」 장노인은 무척 반가왔다. 전화벨이 울려도 장영감을찾는전화는 없다시피 했으니까.
김영감은 카나다에 처음와 아들 내외를 따라갔던 교회에서 주일마다 만나던 키작고 머리가 몽땅 빠진 영감이었다.
「그래 재미가 어떻소? 웬만하면 우리 토요일날 한번 만납시다. 그동안 못 만났던 얘기도 좀 하고 천천히 영화구경이나하고…」
「아니, 다 늙은이들이 영화는 무슨영화요. 말도 알아듣지못하는데…」
「허허, 장영감은 욕심도참많구려. 우리처지에 그림만보면됐지, 말까지 알아 들으려고하니, 참! 아뭏든 우리 토요일 오후에 만납시다.」
「아니! 그래 무슨 좋은영화라도 볼것이 있소?」
「쉬-이.」갑자기 수화기사이로 흘러나오는 김영감의목소리다.
「쉬-이라니 거 무슨 말이오? 누가 오줌이라도 눕니까?」
「아따 급하기는…거 장영감은SEX영화본적이 있소?」
「SEX영화라니?」
「어허! 깜깜이군. 시내에나가면 돈3불50전만내고 3~4시간짭짤하게 구경할수 있는곳이 있소. 전 주일에도다녀왔는데, 그만입디다. 거 집구석에만 처박혀 있지말고요런 재미도 좀 보쇼. 홀애비사정은 홀애비가 안다고, 다늙어가지고 마누라도 없고, 재미도 못볼바에야 영화에나오는 늘씬한[illegible]인계집애들실컷볼수도 있고, 기분또한 괜찮아요. 요번주에는 거 뭐라고하더라…Baby…거 기억이안나는군. 아뭏든 나와요. 내 장영감 영화로나마 회춘을시켜줄테니.」
김노인의 전화를 끊고나서 장영감은 한동안 생각에 빠졌다. 다 늙어가지고 Sex영화라니 주책은… 하기사자기처럼 집에만 붙어있는 집귀신보다 주말이라고 영화를 보러다니는 김노인은 수완이 보통 아니란 생각도 들었다. 하루종일 집에 있노라면 취미라야TV즐기는 것 밖에더 있으랴마는 무슨말을 하는지 저희들끼리 치고 받고 싸우고울고 웃고 알아 듣지도못하고, 대강 그림만 가지고짐작해서 보곤 하지만… 간혹 말초신경을 건드릴만한 장면이 나와도 손자녀석 때문에 맘대로 구경할수 없는 자신이 우습기 조차 했다.
장동철—장노인의 손자다. 나이는 16살, 근데, 이녀석 보통녀석이 아니다. 벌써 아비 어미 몰래 담배를 피우고, 저녁때 운동삼아 아파트 주위를 돌고 왔노라면서 제또래의 백인 계집애와 입마추고 있는것이 가끔 눈에띄기도 했다. 처음에야 무척 놀라 혼을 내주려고도 했지만 어차피 저녀석은 커서 한국사람 되기는 글렀다고생각하니 그저담담하기만 했다.
며느리와 아들놈은 가게 본 답시고 밤11시에나 들어오니 결국은 손자와 장영감 둘이서 집을보며 으레 TV로 시간을 보낸다. TV를 보던중 좀 야릇한 장면이 나오면할아버지 체면에 손자앞에서뚝바로 볼수도 없고, 그렇다고 헛기침을 두어번하기도 쑥스럽고. 그냥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노라면, 이녀석은 꼭 뒤돌아 보면서 할아버지인 장노인을 몇초동안쳐다보다간 씩 웃고 TV로 화면을 돌린다.
벌써 한번이 아니고 매번 그러니 이녀석이 도대체 이할애비를 놀리려고 그러나, 아니면 다 늙은 퇴물이 눈깜짝 안하고 본다고 비웃는 것인지 도대체 종 잡을수가 없었다.
그러던중 마침 김영감 에게서 Sex영화를보러 가자고 했으니 잘 됐다.
오래간만에 실컷 기집애궁뎅이나 감상해야 겠다면서 「참 나오길 잘했다」고 생각했다. 기다리던 김영감이반갑게 맞아준다.
「여! 얼굴이 더 좋아진것 같구먼」
「집구석에만있으니 먹구자구이렇게 살이찔수밖에」
「아무튼 우리 식당에가서 식사나하구 그 다음에 영화구경을 …」
장노인은 김노인에게 고삐잡힌 망아지마냥 끌려서 식사도 하고, 기대하던 극장에 들어왔다.
자리에 앉아 상영시간을기다리면서 아까 김노인이 일러준 말을 되씹어 본다.
첫째: 극장에 들어가서는절대로 말을 하지말것(정 말을 하려면 자네나 나나 일본어를 할줄 아니까 그걸로 통화할것)
둘째: 극장에 들어가기 전에 미리 대소변을 보고, 영화도중 변은 출입을 삼가할 것.
세째: 영화를 볼때 앞만보고 절대 좌 우 뒤를 처다보지말것.
처음에 뭐가뭔지 모르던장영감은 이내 김영감의 주의를 듣고 고개를 끄덕인다.
「요는 우리나이에 이런곳에 들어와서 젊은애들, 아니 아무 한국 사람들에게들켜봐 가뜩이나 소문 잘나는 세상에 어디 얼굴들고 다니겠어? 그러니 내말대로 하면 절대 들킬 염려가 없으니 따라서하라구.」
시간이 지나면서 장영감은영화속에 빨려 들어갔다. TV에서 아슬아슬 감추던 장면들을 여기서는 너무 잘 가깝게 보여준다.
나이먹어 죽어가는 말초신경이 자꾸 꿈틀거린다. 슬쩍 옆눈으로 김영감을 바라보았더니 그 작은 체구가 의자속에 쏙 파묻혀서 영화에열중이다.「이 영감태이가 요런재미로 사는군. 진작 알려주지않고, 에잉!」
영화가 한창 무르익던중바로 앞자리에 젊은사람 둘이 앉는다. 뒷모습을보니 동양사람인데, 중국사람같기도하고, 한국, 일본사람같기도해 요리조리 뜯어보다 김영감말처럼 잠자코영화에열중키로했다.
그때다. 갑자기 김영감앞에앉아있던 젊은이 머리가 뒤로 돌더니 김영감더러「Do you have light?」
갑자기 당한 일이라 김영감이 어리둥절 해 있을때, 이번에는 장영감 쪽으로 머리를 돌린다.「Do you have …」
그 순간이다. 장영감은 자기도 모르게 부르짖었다.
「동철아—」
「할아버지—」〈끝〉

재미있는 야외놀이 Frisbee던지기

◇던지는 방법

〈가볍게 쥐고 던지기〉

〈튀기기〉

〈어깨높이 던지기〉

◇잡는 방법

〈중지끝으로 잡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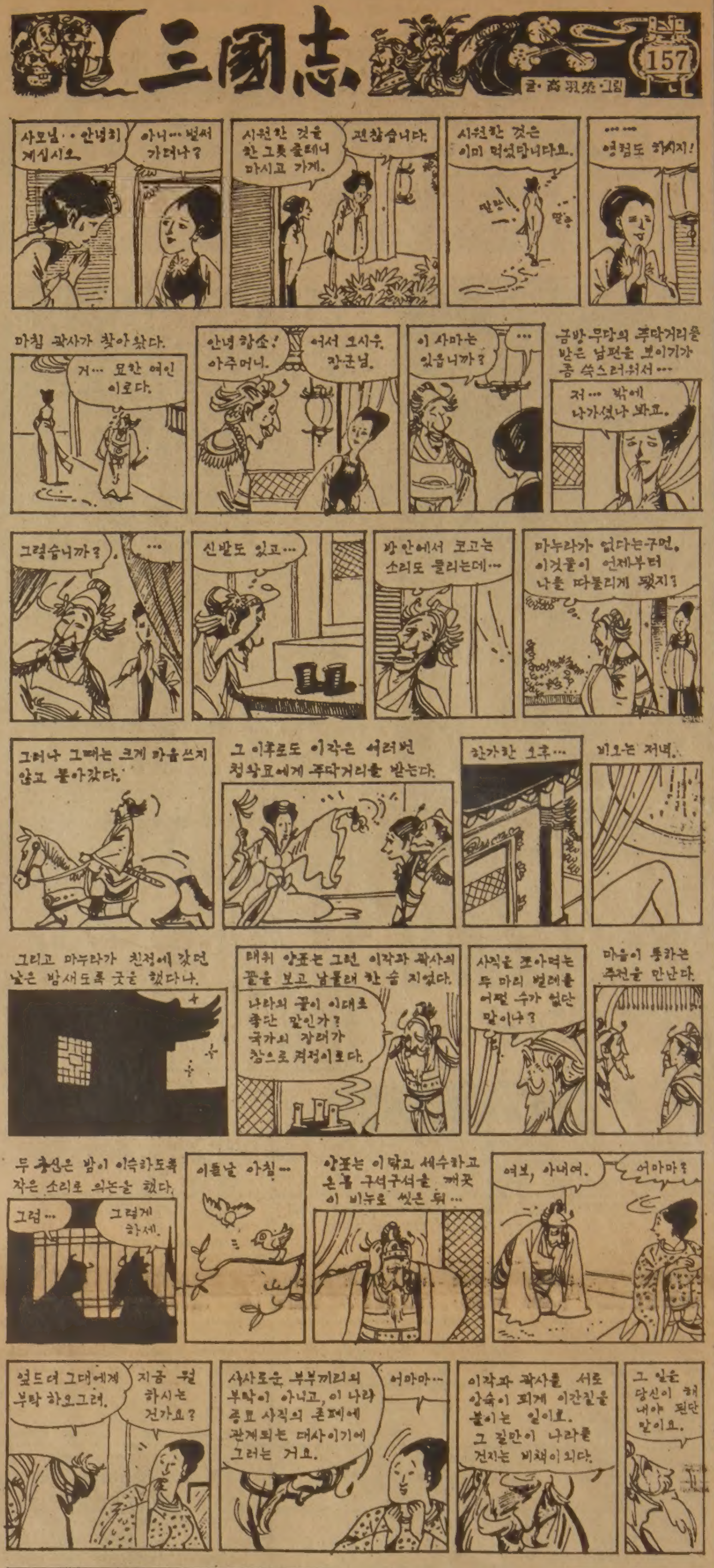
〈머리뒤로 잡기〉

〈등뒤로 돌려잡기〉

〈다리 사이로 잡기〉

— 한국일보의 광고는 이용해보신 분만이 그 효과를 압니다 —

한국일보 광고부 533-23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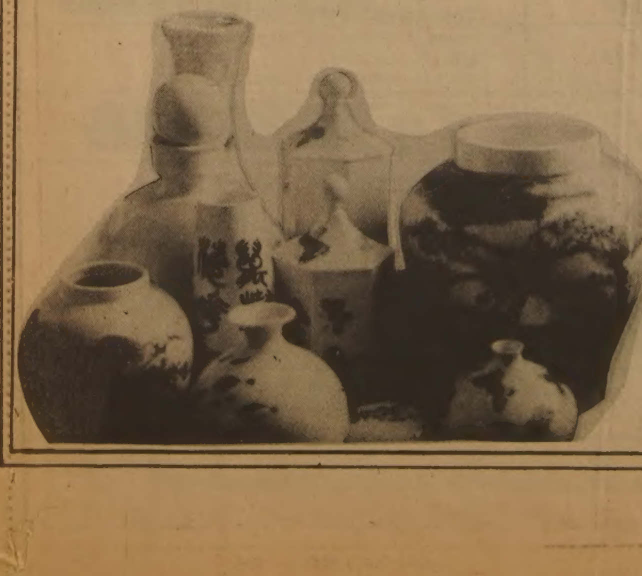


한국기원

영업시간 : 낮12시~밤12시
653A BLOOR ST. W.
☎ : 533-0168

Rasan Galleries LTD.

동양의 멋이 담긴 고급가구, 앤틱, 선물용품을 구비하고 있읍니다.
교포 여러분께는 언제나 20% 할인 해드립니다.



* 취급품목

- 북경장미목 가구, Cabinet, Screen, Antigue가구.
- 북경 칠보공예품(Cloisonneware) 및 상아(IVORY), Jade조각품
- 각종 북경보석품(금, 은)
- 중국, 일본 골통품및 동양화
- Hand Painted Ceramic.
- 이조가구 복제품및 한국병풍

444 YONGE ST
COLLEGE PARK SHOPS
595-0836

220 YONGE ST.
EATON CENTRE
"THE MEWS" 4LEVEL
593-4208

이 용 석